

# INVITATION TO THE ARTS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07  
vol.307



표지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아이다... 영원 불멸의 사랑

세계의 공연장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전용 홀을 중심으로  
파리의 공연장 이야기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 2017년도 3분기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6.19(월)부터 선착순 마감

www.bscc.or.kr(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 3분기

**특강**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7. 4(화) 14:00~16:00 컨퍼런스홀(수강료 : 20,000원)

신규 강좌

강좌명	기간	횟수	시간	장소	정원(명)	수강료	
알면 더 재미있는 국악이야기	7. 3 ~ 9. 4 (월)	10	14:00 ~ 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원	
소설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	감각을 여는 글쓰기 I	7. 11/18/25 (화)	3	10:00 ~ 12:00	컨퍼런스홀	30	40,000원
	감각을 여는 글쓰기 II	8. 8/22/29 (화)	3	10:00 ~ 12:00	컨퍼런스홀	30	40,000원
	다르게 글쓰기	9. 12/19/26 (화)	3	10:00 ~ 12:00	컨퍼런스홀	30	40,000원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7. 13 ~ 9. 28 (목)	10	14:00 ~ 16:00	컨퍼런스홀	50	180,000원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7. 5 ~ 9. 6 (수)	10	14:00 ~ 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원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7. 8 ~ 9. 9 (토)	10	10:30 ~ 12: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요가와 한국춤	기초입문	7. 3 ~ 9. 4 (월)	10	18:00 ~ 19:40	무용단 연습실	25	100,000원
	입춤	7. 3 ~ 9. 4 (월)	10	20:00 ~ 21:40	무용단 연습실	25	100,000원
	원형지무	7. 4 ~ 9. 12 (화)	10	18:00 ~ 19:40	무용단 연습실	25	100,000원
	산조춤	7. 4 ~ 9. 12 (화)	10	20:00 ~ 21:40	무용단 연습실	25	100,000원
바이올린	A	7. 3 ~ 9. 4 (월)	10	17:30 ~ 19: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B	7. 3 ~ 9. 4 (월)	10	19:30 ~ 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가야금	A	7. 4 ~ 9. 12 (화)	10	17:30 ~ 19:00	컨퍼런스홀	12	140,000원
	B	7. 4 ~ 9. 12 (화)	10	19:30 ~ 21:00	컨퍼런스홀	12	140,000원
사물놀이	7. 4 ~ 9. 12 (화)	10	19:00 ~ 20:30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12	120,000원	
클라리넷	A	7. 5 ~ 9. 6 (수)	10	17:30 ~ 19:00	컨퍼런스홀	8	120,000원
	B	7. 5 ~ 9. 6 (수)	10	19:30 ~ 21:00	컨퍼런스홀	8	120,000원
해금	초급	7. 6 ~ 9. 14 (목)	10	17:30 ~ 19: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중급	7. 6 ~ 9. 14 (목)	10	19:30 ~ 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클래식기타	중급	7. 7 ~ 9. 8 (금)	10	14:00 ~ 15:3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초급	7. 7 ~ 9. 8 (금)	10	16:00 ~ 17:3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Chamber Hall Opening Festival

## BNK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2017. 8.15<sup>TUE</sup> ▶ 8.29<sup>TUE</sup>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15(TUE)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 17(THU)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앙상블
- 18(FRI)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 19(SAT) 비르투오조앙상블 '브람스의 회상'
- 20(SUN) 부산플루트앙상블
- 22(TUE) 앙상블코스모폴리탄  
'바흐, 그리고 텔레만'
- 25(FRI) 정두환의 토크콘서트
- 26(SAT) 이성주의 바로크 리플렉션
- 28(MON) 원스트링챔버
- 29(TUE) 코리안솔로이스츠





BNK 부산은행 창립50주년 기념

# 제5회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BNK부산은행이 창립50주년을 맞아 유명교수진의 재능기부와 참가비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5박6일간의 음악캠프를 마치고 모두가 하나되는 수료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젊은 음악인의 꿈과 열정이 담긴 무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22일(토) 오후 4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예술총감독  
오홍근



관악지휘  
이정생



현악지휘  
다니엘 S김



협연  
바eson  
최영진

## Program

- \* 드보르자크 /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22, 제1악장  
A. Dvorak / Serenade for Strings in E major, Op. 22 I, Moderato
- \*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P. Sarasate/Zigeunerweisen op. 20
- \* 모차르트 / 바순 협주곡 작품191, 제1악장  
W. A. Mozart / Bassoon Concerto in B-flat major K.191 I, Allegro
- \* 로시니 / 도둑까치 서곡  
G. Rossini / Overture "La Gazza Ladra"
- \* 무소르스키 / 전람회의 그림  
M. Mussorgsky / Pictures at an Exhibition

- ▶ 입장권 : 전석초대 (초대권 소지자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좌석 배정)
- ▶ 초대권 : BNK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 무료배부 ([www.happybnk.co.kr](http://www.happybnk.co.kr))
- ▶ 문 의 :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051)661-4831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SPECIAL +** 정통 발레와 피겨스케이팅의 우아한 만남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08



14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전용 홀을 중심으로...  
 파리의 공연장 이야기



36

**VIEW +**

문화가 화제  
 제3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제1회 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  
 제12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53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

# contents

---

## SPECIAL +

- 08 커버스토리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

## CULTURE +

- 10 7월 공연 캘린더
- 12 오페라 연출가 이익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아이다... 영원 불멸의 사랑
- 14 세계의 공연장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전용 홀을 중심으로... 파리의 공연장 이야기
- 18 축제 속으로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20 그곳에 가면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22 테마가 있는 여행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책

---

## VIEW +

- 29 프리뷰
- 36 문화가 화제  
제3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 제1회 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  
제12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 40 리뷰
- 42 프로그램 가이드

---

## NEWS +

- 50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3 부산문화회관 소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

2017년 7월호 통권 307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6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

정통 발레와 피겨스케이트의 우아한 만남

##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 Saint-Petersburg

정통 클래식 발레와 역동적인 피겨스케이팅이 만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이 2017년 여름, 부산을 찾는다.

토슈즈 대신 스케이트를 신고 은반 위에서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아이스발레는 깃털처럼 사뿐사뿐한 몸놀림과 도약, 회전 등 발레의 정수를 은반 위에서 역동적으로 선보임으로써 예술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21세기 새로운 예술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아이스발레'라는 장르를 개척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지난 1967년 '빙상 위의 연인'으로 추앙받는 콘스탄틴 보얀스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와 피겨스케이터를 모아 창단한 후 그동안 '백조의 호수', '로미오와 줄리엣', '호두까기 인형' 등 고전발레 레퍼토리의 전막공연을 선보여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첫 내한공연을 가진 후 그동안 총 13차례 내한공연을 통해 여름방학 가족공연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며 한국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일반 아이스 쇼와 차별화하기 위해 정규 공연장 무대 위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는 파격적인 무대연출로 유명하다. 지난 1995년 세계 최초로 미국과 캐나다의 정규 오페라 극장에 아이스링크를 설치, 공연하면서 아이스 쇼를 정통 예술의 한 분야로 끌어올



*Swan Lake*

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아이스링크 설치가 가능한 정식 극장에서만 공연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러시아, 폴란드 등 동구권은 물론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영국, 미국, 한국, 중국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러시아 정통 아이스발레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부산공연에서도 관객들은 아이스링크로 깜짝 탈비꿈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차이콥스키의 3대 명작 발레이자 고전 발레의 대표적인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피겨스케이팅을 신은 무용수들이 무대 위 아이스링크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며 선보이는 유려한 스케이팅, 멋진 회전과 도약은 정통 발레의 우아함을 살리면서도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동작으로 아이스발레의 정수를 선사한다. 거기에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무대와 의상,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은 관객들을 새하얀 은반 위 동화 속 세계로 이끈다.

한여름 도시 속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 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8월 8일과 9일 두 차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8월 8일 화요일 오후 3:00

8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 제1장 궁정 정원

지그프리트 왕자의 21번째 생일 생일을 축하하는 모든 백성과 귀족이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왕자의 어머니인 여왕은 곧 왕위를 이을 왕자에게 내일 있을 궁정무도회에서 신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해가 질 무렵 백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지그프리트 왕자는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간다.

### 제2장 호수

신비스러운 숲속, 왕자는 아름다운 백조가 여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차마 할 시위를 당기지 못한다. 그 여인은 바로 로트바르트의 마법에 걸려 백조가 된 여왕 오데뜨.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만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녀의 저주는 진정한 사랑으로만 풀릴 수 있다. 사랑에 빠진 왕자는 다음 날 무도회에 오데뜨를 초대하여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한다.

### 제3장 궁정 무도회

무도회 날, 왕궁의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은 왕자에게 선택될길 기다리며 춤을 춘다. 그러나 오직 오데뜨 생각뿐인 왕자는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보이지 않자 절망에 빠진다. 그 순간 나타난 오데뜨를 닮은 로트바르트의 딸 오달리아를 보고 오데뜨라고 믿은 왕자는 그녀에게 청혼한다. 그 장면을 본 오데뜨는 숲속으로 도망간다.

### 제4장 결혼식

어두운 밤, 백조들은 사랑을 잃고 슬퍼하는 오데뜨를 위해 슬피게 춤을 춘다. 이때 왕자가 나타나 오데뜨에게 속앓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오데뜨는 그에게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없어졌다고 슬퍼한다. 로트바르트가 돌을 다시 떼어놓으려고 나타나 방해하지만, 지그프리트 왕자는 그녀에게 끝까지 따를 것을 맹세한다.

# 07

2017 JULY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대** 대극장    **중** 중극장
-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SUN	MON	TUE
<p><b>전시실</b></p> <p><b>(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개관기념 기획전 '모래랑 빛이랑'</b></p> <p>7월 7일(금)~8월 27일(일) 평일 10:00, 10:30, 11:00, 11:30, 12:00 (평일오전은 단체예약만 가능), 13:30, 14:30, 15:30, 16:30 주말 및 공휴일 10:30, 11:10, 11:50, 13:30, 14:30, 15:30, 16:30 (※매주 월요일 휴관)</p> <p>입장료 : 평일 1만 1천원, 주말 1만 3천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단체 10인 이상 1만원)</p> <p>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1899-8418</p> 		
<b>2</b>	<b>3</b>	<b>4</b>
		<p><b>대</b> 제47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b>9</b>	<b>10</b>	<b>11</b>
<b>16</b>	<b>17</b>	<b>18</b>
		<p><b>대</b> 2017 예술제-부산예술고등학교 제30회 무용 정기공연 19:00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5-8106)</p>
<b>23</b>	<b>24</b>	<b>25</b>
		<p><b>대</b> 제15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무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9508-8700)</p>
<b>30</b>	<b>31</b>	

WED	THU	FRI	SAT
<b>6/28</b> <b>대</b> 부산문화 2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19:3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문화(1600-1803)	<b>6/29</b> <b>대</b>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	<b>6/30</b> <b>대</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V-R.슈트라우스' 11:00 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5) <b>대</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19:30 전석 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b>1</b> <b>대</b> 2017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내셔널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기억의 치유' 19:30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02-576-3332)
<b>5</b>	<b>6</b>	<b>7</b> <b>대</b>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1회 정기연주회 '미완성'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b>8</b>
<b>12</b> <b>대</b>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쇼케이스 14:00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사업단(746-4383)	<b>13</b> <b>대</b>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 축하연주회 19:30 부산MBC(760-1126)	<b>14</b>	<b>15</b>
<b>19</b> <b>대</b>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2회 정기연주회 '한반도 아리랑 환타지아'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b>20</b> <b>야</b> 부산시립무용단 2017 여름마당 춤 축제 '춤바람, 신바람' 20:00 ※우천시 대극장 무료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b>21</b> <b>야</b> 부산시립무용단 2017 여름마당 춤 축제 '춤바람, 신바람' 20:00 ※우천시 대극장 무료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b>22</b>
<b>26</b>	<b>27</b> <b>대</b>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써머판타지-가요합창음악회' 19:30 2만원·1만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	<b>28</b>	<b>29</b> ※ 토요일상설무대는 어린이전용극장 조성공사로 당분간 쉽니다.

## 아이다... 영원 불멸의 사랑

*Giuseppe Verdi, Aida*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자주 상연되어지는 오페라 중 최상 순위는 반론의 여지없이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1813-1901)의 작품일 것이다. 매순간 세계 어느 극장에서든 그의 오페라가 공연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베르디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런 명작을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현대의 우리는 정말 행운이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아이다'는 오페라 예술의 극치와 정점을 찍은 대표 작품으로서 '아이다'의 음악적 완성도와 스펙터클한 구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다. 베르디의 26개 작품 중 24번째 작품인 '아이다'는 그야말로 베르디 본인의 말처럼 <노예선>의 시절에 쓴 작품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느끼는 대로 적어 내린 불후의 명작이다. 또한 당시 독일 바그너의 영향이 밀려오는 것을 막아내고 이 작품으로 인해 이탈리아 전통을 고수함은 물론 푸치니로 연결되는 새로운 이탈리아 방식의 오페라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다. 이후 '오텔로'와 '팔스타프'로 그의 오페라 작품 세계는 마감하게 된다.

많은 예술가들은 '아이다'를 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작품 제작에 뛰어들거나 공연할 엄두를 감히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맘은 있으나 평생 이 작품을 접하지 못하고 커리어를 마치는 지휘자, 연출자, 성악가들이 부지기수다.

연출자로서 내게 2010년은 잊지 못할 해였다. 한 해에 세 번이나 각기 다른 프로덕션과 함께 새로운 느낌의 무대로 '아이다'를 올린 것이다.



첫 번째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중 부산을 기반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솔오페라단의 '아이다'로 모던하고 간결한 무대연출로 관객들과 만났고, 두 번째는 <인천 펜타포트 아츠 페스티벌> 중 인천오페라단과 전통적인 클래식 무대연출로 '아이다'를 선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월드컵 승리 기원 기념 야외 오페라>로 '아이다'를 준비하며 바다를 벗 삼아 모래사장 위에 이집트 무대를 만들었다. 특히 당시 해운대에서의 오페라 '아이다' 공연은 최초로 그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

야외 공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열악한 시스템도 아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다. 하필이면 전날부터 비구름이 계속 몰려와 공연 여부가 불투명 했는데 하늘이 도우사 공연 직전 비가 오지 않아 공연을 시작할 수 있었고 월드컵 축구 경기 직전

끝내야 했던 개선식 장면이 마치자마자 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야외 백사장이라는 공연 상황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기억들이 그때의 에피소드로 남아 감회가 새롭다.

이처럼 당시 30대였던 나는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자신감으로 신명나게 서울, 인천 그리고 부산을 오가며 작업에 임했다. 각각의 새로운 창작을 하는 작업은 설레면서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베르디의 음악을 차 안에서 CD로 들으며, 대본과 악보를 묵상하며 계속 그의 마음을 읽고자 노력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 작품에 담긴 베르디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피라미드의 비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던 삼각관계의 이야기,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다와 라다메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

을 빌며 기도문을 외우는 암네리스,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느껴진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끝없이 얽히고 설킨 미로 같은 세상의 해법이 될 열쇠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다. 베르디가 젊은 시절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힘든 날들을 보내며 버틸 수 있었던 힘 또한 사랑이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죽음 앞에서 겸허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나 작품을 만들 때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담아내려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영혼 불멸, 영원 불멸이 될 것이다. 베르디처럼, '아이다'처럼...



## PARIS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전용 홀을 중심으로...

### 파리의 공연장 이야기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퐁피두 센터 등 파리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이 도시의 주요 미술관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파리의 공연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저 '오페라 가르니에'의 파사드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극장 내부 투어를 해보는 정도이다.

일찍이 '오페라 바스티유(현 파리 국립 오페라단)'가 국내 언론에 크게 조명된 적이 있었다. 바로 1989년 개관할 때이다. 초대 음악감독으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내정되어 있었지만, 취임도 하기 전 해고되었고,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이었던 정명훈씨가 36세의 나이로 지휘봉을 잡았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하지만 5년 뒤 석연치 않게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이슈가 되기도 했다.

#### 파리 국립 오페라단 *Opéra national de Paris*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페라단으로, 프랑스 문화부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있다. 1669년 루이 14세에 의해 '왕립음악원(Académie royale de Musique)'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예술 극단(Théâtre de la République et des Arts)'으로 개편되는 등 여러 차례의 조직, 구성 및 명칭 변경을 거쳐 1994년 이후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1875년에 완공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사드를 가진 오페라극장 중 하나인 '오페라 가르니에(Opéra Garnier)'는 꽤 오랫동안 파리 국립 오페라단의 중심이었다. 이후 1889년 현대식 극장인 '오페라 바스티유(Opera Bastille)'가 완공된 이후 오페라 작품은 오페라 바스티유에서, 발레 작품은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공연되고 있다. 하지만 존 노이마이어의 발레공연이 바스티유에서, 바로크 오페라가 가르니에에서 공연되기도 한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파리 중심가 9구에 위치해 있다. 루브르 미술관에서부터 이어진 오페라 대로(Avenue de l'Opera)를 따라 걷다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진 파사드를 가진 건축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페라 가르니에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페라 바스티유가 완공되고 파리 국립 오페라단이 오페라 바스티유로 본거지를 옮기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파리 오페라는 가르니에 극장이다. 메트로 3, 7, 8 호선이 만나는 Opera역이 바스티유가 아닌 가르니에를 지나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극장 내부에 들어가면 그 화려함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



샤갈이 그린 오페라 가르니에 객석 천장화

은 절정에 달한다. 그렇기에 '팔레 가르니에(Palais Garnier)'라 불리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다른 극장과 달리 전용면적 중 공연장과 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공연 만큼이나 사교가 중요했던 당시 파리의 문화 때문이다. 뮤지컬로 더 잘 알려진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의 무대가 된 곳도 이곳이며, 마르크 샤갈이 그린 객석 천장화도 너무나 유명하다.

### 오페라 바스티유 Opera Bastille

바스티유 기차역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오페라 바스티유'는 우루과이 출신의 건축가 카를로스 오토가 디자인을 했다. 가르니에 극장이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Charles Garnier)의 이름에서 명명하였지만 오페라 바스티유는 그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오페라 바스티유이다.

바스티유 광장은 설계목표였던 대중 친화적인 오페라극장을 짓기 위한 선택한 최적의 장소였다. 잘 알다시피 기차역 이전에 바스티유 감옥이 있었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시발이 된 장소이다. 극장 내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박스석이 없다. 오페라의 대중화와 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한, 건설 당시 프랑스 정부의 문화정책 때문이다. 오페라 바스티유는 기존의 부르주아 오페라 극장에 반대개념인 시민 극장인 것이다. 객석 측면에 길고 좁은 캐노피 구조의 발코니 좌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시니엄 극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700석 오페라 바스티유는 거의 매일 저녁 오페라와 발레가 번갈아 공연되는데, 16/17시쯤 마지막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나 넵트랴코가

출연한 '예프게니 오네긴' 그리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베이스 연광철씨가 출연한 '리골레토' 등이 공연되어 화제가 되었다.

### 파리의 콘서트홀 샬 플레엘 Salle Pleyel 과 필하모니아 드 파리 Philharmonia de Paris

꽤 오랫동안 파리는 발레의 중심지였고, 오페라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현악 공연은 주목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파리 오케스트라(Orchestre de Paris) 등이 있지만, 독일어권 국가의 다른 도시의 오케스트라에 비해서 한 발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파리의 음악당 역할을 해 온 '샬 플레엘(Salle Pleyel)'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오페라 가르니에, 바스티유 그 밖에도 오페라 코믹, 테아트르 상젤리제, 샤틀레 등 파리에 있는 공연장 대부분은 오페라 극장이다. 종종 상젤리제, 샤틀레 극장에서 음향 반사판을 설치해서 음악회를 열기도 하지만 콘서트홀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연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 샬 플레엘이 유일했다. 파리에 본사를 둔 피아노 제조회사 플레엘 사가 건립한 음악당으로 추후 운영 주체가 수차례 바뀌었고,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장기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2002년부터 4년간의 리노베이션 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는데 2006년 재개관하면서 파리 오케스트라가 상주한다. 상젤리제 거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관광객의 발길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주로 현지의 클래식 팬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하지만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의 투어 공연이 이어지는 살 플레엘의 시즌 프로그램은 서유럽의 그 어떤 클래식 공연장 못지 않다. 여기까지는 2015년 이전의 이야기이다. 2015년 1월 '필하모니아 드 파리(Philharmonia de Paris)'가 개관하기 때문이다. 라빌레트 공원(La Villette) 부지 내 세워진 이 혁신적인 콘서트 홀은 2006년에 건립이 계획되었고, 이듬해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 공모전에 당선됐다. 장 누벨은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루체른 KKL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건축가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7천억 가까이 소요된 공사비용 탓에 2012년 완공 계획이던 필하모니아 드 파리의 개관은 계속 미루어졌고, 결국 3년 늦어진 2015년 1월 개관하게 된다. 하지만 서둘러 개관을 하다보니 공사가 다 완료되지도 못한 채 시즌이 오픈하게 되었고, 이는 건축가와 파리의 불화로 이어지는 해프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새의 이미지를 가진 34만개의 에칭된 알루미늄 패널로 구성된 건축물 표면은,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비정형의 혁신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 객석수 2,400석의 '피에르 불레즈 대극장(Grande Salle Pierre Boulez)' 내부 역시 기본적으로 베를린 필하모니아 같이 무대를 에워싼 와인야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형태와 내부 마감은 기존에 없던 감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다. 아직 그 음향적인 평가는 선불리 내리기 어렵지만, 필하모니아 드 파리는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 19구,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에 있어 손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연유에서일까, 이 공연장의 평일 공연시작 시간은 오후 8시이다. 파리 도심에서 지하철로 30여분 떨어져 있고 공원 내부까지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 상젤리제 극장 *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여러 도시의 공연장을 소개하면서 파리가 늦어진 이유는 '상젤리제 극장' 때문이다. 여전히 파리에서 클래식 공연을 검색하면, 이 극장의 라인 업을 무시할 수 없다. 오페라와 관현악 공연들은 앞서 소개한 오페라 바스티유와 필하모니아 드 파리에서 주로 공연되지만, 상젤리제 극장을 빼뜨릴 수는 없다. 파리 최고의 명품거리 몽테뉴가에 위치한 탓에 여전히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정기공연을 하는 명성있는 극장이기 때문이다. 16/17 시즌 막바지인 5월 서유럽 투어 중이었던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는 꽤 화제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리



1, 2, 3 필하모니 드 파리  
4, 5 상젤리제 극장



스티앙 킬레만이 지휘하였고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포노프가 협연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에서 이 연주회는 필하모니아 드 파리가 아닌 상젤리제 극장에서 열렸다. 덕분에 상젤리제 극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요나스 카우프먼, 안나 넵트랩코와 같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리사이틀도 예정되어 있다. 이는 초대형 극장인 오페라 바스티유의 매머드급 사이즈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젤리제 극장의 오랜 존재감 때문이기도 하다. 인구 수와 도시의 어매니티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하기에 대도시의 공연장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기능적 역할이 분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필하모니아 드 파리가 개관하면서 살 플레엘의 주요 프로그램이 재즈와 대중가수의 공연으로 메워진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이다.

### 파리에서 뮤지컬은 어디에?

1998년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초연한 이후 파리에서도 해마다 많은 작품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그렇다면 파리에서 뮤지컬을 보려면 어디를 찾아야 할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뮤지컬은 이 뮤지컬이 초연한 '파리 팔레드 콩그레(Palais des congrès de Paris)'에서 공연된다. 하지만 3,700석 규모의 이 건축물은 전문 공연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컨벤션 센터이다. 대신 디즈니 뮤지컬 '라이온킹'이 파리 초연을 했던 '모가도르(Mogador) 극장'과 '샤틀레 극장(Theatre du Chatelet)'에서 자주 뮤지컬이 공연된다. 이 밖에 파리 최대 공연장으로는 초대형 가수들이 공연하는 '팔레 옴니스포 드 파리-베르시(Palais omnisports de Paris-Bercy)'가 있다. 아코르호텔 그룹이 네이밍을 사면서 '아코르호텔 아레나(AccorHotels Arena)'라고도 부른다. 5만 5천 평방 제곱미터의 면적에 약 2만여명이 수용가능하다. 주로 유명 팝스타나 록 그룹 등이 공연을 하지만, 스포츠 행사나 이벤트도 같이 하는 곳이다.

# 21st Bucheon Inter

판타스틱영화제의 새로운 도약

##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7월 13일(목)~7월 23일(일) 부천시 일대

개 · 폐막작 1만원, 일반 상영작 6천원, 심야 상영작 1만 2천원(한 영화당 1인 4매까지 예매가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032-327-6313, www.bifan.kr

# Film Festival

아시아의 한여름을 판타지아로 물들이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가 올해로 21회를 맞이한다.

지난 1997년 첫발을 내딛은 BIFAN은 그동안 전 세계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타스틱 영화제로 두터운 마니아 관객층을 형성해왔다. 대한민국 영화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BIFAN은 새로운 감성과 에너지로 무장한 가장 역동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스페인 시체스 국제영화제, 벨기에 브뤼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포르투갈 판타스포르트 국제영화제 등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BIFAN에서는 전세계 최신의 장르영화 중에서 골라낸 가장 참신한 상상력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다. '탈현실', '초현실', '왜곡된 현실', '은유로서의 현실'을 다루는 거장 감독들의 최신작 이외에도,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선한 시각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재능들을 만날 수 있다.

7월 13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올해 BIFAN에서는 58개국에서 출품한 총 289편(장편 180편, 단편 109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총 작품 수는 지난해 302편과 비슷하나 한국 작품은 지난해 65편에서 올해 109편(해외 작품 180편)으로 크게 늘었다. 전 세

계 장르영화의 새로운 경향과 미래의 장르 거장을 발견하기 위한 BIFAN의 국제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한국 장르영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응원하기 위해 신설된 '코리안 판타스틱', 피 튀기는 액션, 소름 돋는 호러, 심장이 쫄깃한 스릴러들이 포진한 장르영화의 마니아들을 위한 '월드 판타스틱 레드', 헤모글로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SF, 판타지, 코미디, 드라마 등 세계 장르영화를 선사하는 '월드 판타스틱 블루', BIFAN의 미래 관객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패밀리 존', 표현의 자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금기에 도전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영화들로 포진된 '금지구역', 장면 하나, 대사 하나만으로 충격과 반전을 던져주는 촌철살인의 미학에서부터 짧은 시간 안에 응축된 에너지가 긴 여운을 전해주는 단편영화만의 매력으로 가득한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까지 풍성한 섹션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 관객에서부터 매니아층까지 다양한 관객을 아우르는 폭넓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개막작은 영화배우 신하균과 엑소 도경수의 만남으로 주목받은 이용승 감독의 영화 '7호실(룸 넘버 세븐)'로, 서울의 망해가는 DVD방 '7호실'을 배경으로 각자의 비밀을 감춘 DVD방 사장과 알바생이 점점 꼬여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이다. 폐막작은 동명의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한 후쿠다 유이치 감독의 일본영화 '은혼'. 막부 시대에 난데없이 등장한 외계인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SF 사무라이 활극으로, 일본의 유명 배우 오구리 슌, 스다 마사키, 아이돌 가수 하시모토

칸나 등이 출연한다. 개막식은 7월 13일 오후 7시30분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폐막식은 7월 21일 오후 7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펼쳐진다.

BIFAN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특별전에서는 올해 데뷔 20년을 맞은 배우 전도연의 연기인생을 망라하는 특별전 '전도연에 접속하다'와 한국 독립영화의 선봉장으로, 30년 넘는 세월을 견디며 독심 있게 사회적 비판의 시선을 견지해 온故 홍기선 감독의 작품세계를 기리는 '거대한 환영, 정치를 넘어선 영화:홍기선'이 마련된다. 또, 신랄한 장르영화로 시작해 메인스트림의 거장으로 우뚝 선 스페인 감독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판타스틱 영화의 거장', 공포영화 속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남성 권력을 응징하며 복수하는 여성 캐릭터를 소환하여 페미니즘의 문화적 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줄 '무서운 여자들:괴물 혹은 악녀'도 특별상영전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 최근 한국 3대 멀티플렉스와 동시개봉 문제로 논란이 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도 이번 BIFAN에서 특별상영된다.

program



- 1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포스터
- 2 개막작 '7호실'
- 3 폐막작 '은혼'
- 4 2016개막식

그곳에 가면



전국 최초 체험형 영화박물관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영화도시 부산을 알린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중구에 전국 최초 체험형 영화박물관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문을 연다.

용두산공원 부산타워가 올려다보이는 백산기념관 인근에 자리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지하 3층, 지상 4층(연면적 1만 1302㎡)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영상홀과 강의실, 사무공간, 2층은 기획전시실과 피규어 전시장, 그리고 3, 4층에는 박물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들어서 있다. 특히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전국 최초 체험형 영화박물관'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를 꾀했으며 어디

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영화 놀이공간을 갖추고 있다.

2층 입구 매표소를 지나면 180평 규모의 기획전시실과 피규어 전시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SF영화모형박물관을 운영했던 치과의사 배기선 씨가 기증한 피규어 어들로 꾸며진 피규어 전시장은 개관 전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영화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배기선 씨의 피규어 작품들은 개관 기념전으로 상설전시실에서도 만날 예정인데,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는 앞으로 **故 홍영철 한국영화자료 연구원장 특별전**,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 **유명 소장품 유치전** 등 다

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

3층부터는 본격적인 박물관 체험투어가 시작된다. 특히 3층은 영화의 역사와 원리, 영화 제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층 전체가 하나의 탐험공간으로 '영화도시 중앙역 플랫폼'을 시작으로 영화역사의 거리, 명작의 광장, 시네마 아카데미, 시네마 스튜디오를 따라 영화 촬영 및 제작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타임 슬라이스(정지된 동작을 무비 카메라로 찍은 듯 보이게 하는 영상기법), 크로마키(화면 합성기술) 체험을 통해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영화 속 등장인물의 목소



- 1 피규어 전시장
- 2 타임슬라이스 촬영장
- 3 영화도시 중앙역 플랫폼
- 4 어린이 영화마을



BOM:BUSAN MUSEUM OF MOVIES

영문명인 'BUSAN MUSEUM OF MOVIES'의 약자인 '봄'은 '보다'의 명사형과 계절 '봄(春)'의 중의적 표현으로 '영화를 보다', '부산 영화의 봄을 맞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글 '봄'을 상징한 것으로,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은 영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리를 입히는 더빙 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시네마 아카데미에서는 거장의 연구실, 촬영연구실, 감독의 영화철학 등 영화 촬영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영화 관련 직업과 영화 기법, 영화 용어, 영화의 제작과정 등을 알아볼 수 있다.

4층은 영화가 주는 다채로운 즐거움을 테마로 꾸민 체험전시실로, 어린이 영화마을과 무빙이미지홀, 시네마 파크, 하이테크 시네마, 시네마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층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영화축제의 거리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도시답게 레드카펫이 깔린 거리에서 스타가 되어보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또, 올해 22회를 맞는 부

산국제영화제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 코너가 자리하고 있어 터치스크린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지난 카탈로그를 열어볼 수 있다. 특히 하이테크 시네마관은 최신 영상기술인 VR(가상현실)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HDM상영관이 자리하고 있어 영화 매니아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한 어린이 영화마을은 어린이들이 앨리스와 함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공간으로, 어린이 친구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공간이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중차역인 무빙이미지홀은 박물관 투어를 마무리하는 공간으로, 관람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퀴즈로 풀어볼 수 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는 앞으로 영화평론 교실, 영화 인문학 교실, 영화보고 요리하고 등 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 영화제작 학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테마별 여행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민을 위한 옥상 토크쇼, 계절별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6월 30일 개관식을 가진 후 7월 첫 주부터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싱그러운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둘째 주 금요일인 지난 6월 9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6월 테마여행지는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테마여행지로서는 오랜만인 산청 여행에 정기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2시간 30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한옥마을로 유명한 남사예담촌. 지리산 초입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된 바 있다.

“담장 너머 우리 전통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옛 담 마을’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옛날 선비들의 禮가 담긴 마을, 그리고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마음에 禮를 담아가갈 수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예담촌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남사예담촌 해설사 노창운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박씨, 이씨, 정씨, 최씨, 하씨, 강씨 등이 집성촌을 이룬 남사예담촌은 수많은 선비들이 가문을 빛내던 학문의 고장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강의 지명을 공자의 고향인 곽부의 니구산(尼丘山)과 사수(泗水)로 명명할 만큼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여기에 3.2km에 이르는 아름다운 돌담길 안팎에는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고택과 고목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어 찾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노창운 사무장을 따라 처음 찾아간 곳은 남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이씨고가. 성주 이씨의 종가인 이상택 고택으로, 각각 18세기와 20세기에 지은 안채와 사랑채가 2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함께하고 있어 문화재로도 그 가치가 높다. 이씨 고택 입구에는 이제는 남사예담촌의 상징이 되어버린, 일명 '선비나무'로 알려진 X자형 회화나무 두 그루가 서있다. 이씨 고택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수령 300년의 이 회화나무는 일명 부부나무, 사랑나무로 불리는데, 이 나무 아래를 통과하면 금실이 좋은 부부로 백년해로한다고 한다. 또, 이씨고가 마당 한 칸에는 삼신할머니 나무라 불리는, 수령 450년의 회화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나무 몸통의 썩 파인 부분에 손을 넣고 빌면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남사예담촌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택은 3,000석(지금으로 치면 30억 규모) 부잣집이었다고 전해지는 최씨고가이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2개의 중문을 두어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이 곳에서 눈여겨볼 것은 화장실이다. 이곳 고택들은 화장실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최씨고가의 화장실에는 문조차 달려 있지 않아 모퉁이를 돌기 전 반드시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고 한다. 최씨고가에서 또하나 눈여겨 볼 것은 대문 안쪽에 단 거북이 모양의 나무 빗장으로,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 빗장을 만지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2 이씨고택  
3 이씨고택 입구 회화나무

노창운 해설사가 풀어내는 고택에 얽힌 재미나는 해설에 어느새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회원가족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약초향주머니 만들기' 체험시간을 가졌다. 준비된 주머니에 박하, 당귀 등 약초를 섞어 자신만의 특별한 약초향주머니를 만든 회원가족들은 인근 마을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맛있는 약초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오후 첫 일정을 위해 달려간 곳은 단성면에 자리한 성철대종사 생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어로 유명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승인 성철스님이 출가 전 살았던 생가를 복원한 곳이다. 이곳에는 유품전시관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이라는 뜻을 지닌 사찰 겁외사(劫外寺)가 들어서 있다.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성철스님의 수행자적 의지가 담긴 이름으로, 석가모니 부처와 성철대종사의 진영이 걸린 대웅정 외벽에는 성철스님의 출가에서부터 수행, 설법, 다비식까지 스님의 일생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어 철저한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성철스님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다.



- 4 성철대종사  
5 목면시배유지 면화전시관  
6,7,8 동의보감촌

성철대종사 생가와 5분 거리에 있는 목면시배유지(木棉始培遺址)는 문익점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한 곳이다. 고려 공민왕 때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밭대에 목화씨를 숨기고 들어왔던 문익점 선생은 그의 고향인 이곳 단성면 사월리에서 그의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재배에 성공, 우리나라 의복 역사상 일대 혁명이라는 목면을 탄생시켰다. 현재 이곳에는 면화의 재배과정을 알려주는 면화전시관과 면화시배사적비, 그리고 문익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부민각과 선생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각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전시관 주변에는 현재도 문익점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목화를 재배하고 있다.

산청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동의보감의 고장으로도 유명한 산청을 한방약초, 한의학의 성지로 만들고자 조성한 동의보감촌. 산청은 예로부터 당대 최고의 명의로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과 조선 후기,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쳤던 초삼, 초객 형제 등 명의들로 이름난 전통한방의 본고장이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형 웰니스 관광 25선' 한방테마 부문에 선정되기도 한 동의보감촌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한방테마파크로 기체험장, 한의학박물관, 한방자연휴양림 등 편의시설 외에도 한방, 향노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문화 관광 체험프로그램의 개발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독일,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등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6월 푸르른 신록만큼이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함께 했던 산청여행. 오랜 세월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남시예담촌의 돌담길처럼 이번 테마여행 역시 정기회원의 가슴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부산녹색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에코투어

## 영덕 블루로드길에서 배우는 신재생 에너지



### 일정

- 07: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해맞이공원
- 12:00 중식
-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00 죽도산 블루로드 다리, 죽도산 전망대, 어촌 체험
- 16:00 부산 출발

08.11 일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을 배울 수 있는 영덕 블루로드길 여행. 영덕의 명물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많은 영덕 창포리 지역의 사계절 바람을 활용한 명소로 미래 대체에너지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 영덕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블루로드길을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배워본다.

## 07 월 테마여행 당첨자

### ● 신규 회원

강승희(수영구 광안로)      박기현(남구 석포로)  
 권은영(수영구 망미로)      신상수(사상구 양지로)  
 김은주(해운대구 달맞이길)      정주연(부산진구 중앙대로)  
 김철호(수영구 과정로)      황성희(남구 유엔평화로)  
 박용주(부산진구 중앙변영로)      최미경(사하구 하신변영로)

### ● 기존 회원

곽기만(영도구 일산봉로)      박정민(동래구 금강공원로)  
 김난희(북구 학사로)      박종태(연제구 법원북로)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박창열(남구 석포로)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석종명(남구 진남로)  
 박동희(연제구 법원북로)      송말남(부산진구 중앙변영로)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예술감독 김용철

# 춤바람 신바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 108기 · 2017 여름마당 춤 축제



2017

7. 20 목 ~ 21 금 20:00 무료공연

부산문화회관 야외마당(우천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무용단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3121

# 2017 Summer Fantasy

## 이문세편

### 7080 가요합창 음악회

#### Program

오프닝  
/ 조조할인

사랑  
/ 사랑이 지나가면  
/ 깊은 밤을 날아서  
/ 모르나요

추억  
/ 사랑 그렇게 보내네  
/ 그녀의 웃음소리  
/ 옛사랑

희상  
/ 이별 이야기  
/ 소녀  
/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인생  
/ 나는 행복한 사람  
/ 파랑새  
/ 알 수 없는 인생



지혜 전진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사희 정희정



드럼 김진훈



기타 윤태현



기타 홍광현

2017. 7. 27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권 / R식(1층) 20,000원 S식(2층) 10,000원 예 매 / www.bscc.or.kr 문 의 / 607-3115~6(시립합창단), 607-6075(정기회원)

할 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 경로우대자 | 중·고등학생 | 의사진 및 유족, 의상자 직계가족 30% ▶ 단체(30명이상) | 정기회원 |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20% ▶ 단체(20명이상) | 가족할인(3인 이상 가족) | 합창매니아(이전합창단 티켓소지자)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병행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8:30 /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 View Plus

July 2017  
vol. 307

INVITATION TO THE ARTS

##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음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1회 정기연주회 미완성

지휘 **최이호**만피아노 **김진호**

세계적 명성의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에서 특별상 수상, 게오르그 솔티 국제지휘콩쿠르에서 홍콩 출신 최초 수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지휘자 **최이호**만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갖는다.

7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1회 정기연주회 '미완성'에서는 **최이호**만이 객원지휘하고 국내외 폭넓은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 음악계의 중견 피아니스트 **김진호**의 협연으로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미완성'을 비롯해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립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 기상곡'을 들려준다.

지난 2001년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임지휘자로 전격 발탁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객원지휘자 **최이호**만은 2008년 국제적인 클래식 평론 사이트인 Concertonet.com으로부터 모범적인 오케스트라라는 호평을 받은 홍콩 프로 아르테 오케스트라를 창단, 현재까지 음악감독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무대를 통해 미국 헤럴드 타임스로부터 '빛나는 사운드로 풍부한 동작과 집중력'을 보여준다는 찬사와 함께 홍콩 일간지 대공보로부터 '명확하고 적절한 지휘로 당당하고 확고한 그만의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은 **최이호**만은 미국 블루밍턴 심포니 예술감독, 콜럼버스 인디애나 필하모닉 부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홍콩 침례대학 기악/합창 지휘과정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의 스펙트럼을 펼쳐보일 이번 무

대에서는 첫 곡으로 작곡가 스메타나의 조국 체코슬로바키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교향시 '나의 조국'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몰다우'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은 피아니스트 **김진호**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로, 장대한 곡상과 호탕한 구성이 마치 왕의 품격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작품이다. 협연자 **김진호**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주최 유망신예 연주회를 계기로 국내에 정착, 독주회와 실내악을 중심으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미국 차타누가 심포니, 우크라이나 하르코프 필하모닉, 싱가포르 심포니, 말레이시아 페낭 필하모닉,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져왔으며, 2007년에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과 쇼팽의 14개 왈츠 작품을 담은 두 개의 음반을 발매한 바 있다.

2부 무대에서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곡으로, 미완성임에도 서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색채와 긴장감으로 슈베르트만의 독특한 음악적 경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교향곡 제8번 '미완성'에 이어 스페인 정서를 배경으로 색채적인 관현악 효과를 구사하고 있는 립스키-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을 들려준다.

**일시** 7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개관기념 기획전 어린이 예술교육 체험전 '모래랑 빛이랑'



- 국내 최초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예술교육체험
- 모래랑 빛을 이용한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 어린이 예술교육체험 압도적 1위, 43개 도시 61만여 명 관람

### 국내 최초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 '모래랑 빛이랑'이 부산을 찾는다.

오는 9월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재개관에 맞춰 어린이극장 개관기념 기획전으로 열리는 '모래랑 빛이랑'은 모래랑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으로, 높은 예매율과 최우수 관객 평점으로 그동안 43개 도시에서 61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모래와 빛이랑'은 친환경적 소재인 모래와 과학의 빛을 이용, 자유로우면서도 따스한 감성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사회성(SQ) 발달과 신체,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켜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생각과 느낌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체험전은 모래와 빛을 주제로 한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샌드애니메이션(빛 유리판 위에 놓인 색모래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보는 모래 아트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한 후 모래 위에 동물 친구들을 직접 그려보는 '황금동물원', 라이트드로잉(미니손전등으로 특수 제작된 벽과 바닥에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국내 최초 빛 아트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한 후 손전등으로 천사들을 직접 그려보는 '별빛 구름마을'을 통해 저마다 개성이 담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형형색색 빛을 내뿜는 자갈빛을 따라 볼풀(Ball pool)로 꾸며진 '무지개 바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

특히 '별빛 구름마을'은 빛의 원리와 기능,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빛의 역할 등을 쉽게 배울 수 있어 교육적 효과 또한 뛰어나다.

### 황금동물원

모래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샌드애니메이션 공연을 직접 보는 시간! 황금동물원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모래를 이용해 모래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 모래를 뿌려보기도 하고 모래 위에 그림도 그려 보면서 동물 친구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동물 도장도 모래 위에 콧국 찍어보며 우리만의 황금동물원을 만들어 볼까요?

### 별빛구름마을

하얀 방 위에 깜깜한 어둠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선생님의 공연을 직접 보면서 반짝반짝 빛마음을 탐험해 보아요~.

### 무지개 바다

형형색색 빛을 내뿜는 자갈빛을 따라 즐거운 바다 속으로 풍덩 빠져보아요~ 방울방울 볼풀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볼을 던지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숨겨진 바다 친구들을 찾아 그림판에 직접 그림도 그리고 우리만의 무지개 바다마을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요~.

#### 일시·장소 7월 7일(금)~8월 27일(일)

평일 10:00, 10:30, 11:00, 11:30, 12:00  
(평일 오전은 단체예약만 가능), 13:30, 14:30,  
15:30, 16:30, 주말 및 공휴일 10:30, 11:10,  
11:50, 13:30, 14:30, 15:30, 16:30  
(※매주 월요일 휴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입장료** 평일 1만 1천원, 주말 1만 3천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단체 10인 이상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1899-8418



## 부산시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 버스정류장



작가 오성젠



연출 오정국



중국어권 작가로서는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가오싱젠(Gao Xingjian)의 희곡 '버스정류장'이 부산시립극단의 무대로 시민들과 만난다.

지난 2010년 부산연극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연극인상'을 수상한 연출가 오정국의 객원연출로 무대에 오르는 부산시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 '버스정류장'은 가오싱젠이 1983년 발표한 그의 대표적인 희곡으로, 동양의 전통사상과 정서를 현대 부조리극으로 형상화하면서 극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말 없는 중년 사내와 60세 가량의 노인, 젊은 아가씨와 꼰대꼰대 청년, 서른 살의 안경을 쓴 사내와 큰 가방을 든 애기엄마, 그리고 공구배낭을 든 숙련공과 회사 간부 한 명이 차례차례 정류장에 등장한다.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은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지만 버스는 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들을 지나친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나중에는 세월이 흐른 사실조차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다림만이 전부가 되어버린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삶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버스정류장'은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케 한다. 극중에서 '버스'는 누구나 바라는 성공, 사랑, 행복, 자유, 평화에서부터 일

상의 작은 소망까지 저마다 추구하는 목표를 대변한다. 그들이 기다리는 버스는 과연 어떤 운명을 실어 나를까? 운명을 뒤엎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후회는 반드시 따르지만 그게 두려워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버스는 절대로 당신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연극 '버스정류장'을 통해 보여준다.

중국에서 태어나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에서 프랑스어 문학과를 전공한 가오싱젠은 그의 전위적인 사상이 문제가 되어 중국당국으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지목당하면서 1987년 결국 프랑스로 망명, 1998년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다. 가오싱젠은 지난 2000년 보편적 타당성과 날카로운 통찰력, 언어적 독창성으로 가득찬 작품을 통해 중국어권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대표작으로 '버스 정류장', '영혼의 산', '한 사람의 책' 등이 있다.

객원연출가 오정국은 2004년 '인류최초의 키스', 2005년 'B.C 2430', 2007년 '얼굴없는 피카소', 2009년 '대숲에는 말이 산다' 등 부산연극제에서 4차례나 연출상을 수상한 부산의 잘나가는 연출가로, 지난 2008년 부산시립극단 제32회 정기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로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일시** 7월 11일(화)~15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장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2회 정기연주회 한반도 아리랑 환타지아

지휘 이정필



테너 김훈



민요 최윤영



리코더 권호진



2012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테마로 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2회 정기연주회 '한반도 아리랑 환타지아'가 7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비상임단원 이소정, 평양코리야예술단 단원인 테너 김훈,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수석 남순천, 단원 최원갑, 경상도민요보존회 대표 최윤영, 리코더 연주자 권호진, 한울림합창단이 출연, 전통 아리랑에서부터 창작아리랑, 그리고 북한의 아리랑 연주곡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북한의 공훈 예술가 최성환이 1976년 작곡한 창작관현악 '아리랑 환상곡'으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풍부하면서도 민족적인 선율이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기존 아리랑의 슬픈 느낌과는 달리 아름답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준호가 편곡한 '혼의 소리 아리랑'.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아리랑을 집대성하여 한민족이 지닌 아리랑에 대한 정서를 담아낸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와 한울림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박성희, 정선희, 이소정과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향두계놀이 이수자로 있는 최윤영의 소리로 들려준다.

북한 출신의 성악가 김훈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무대에서는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학부를 졸업하고 북한 5대혁명 가극의 주역 가수로 활동했던 테너 김훈이 북한가요 '암록강 2천리'와 민요 '박연폭포'를, 이어서는 소프라노 남순천, 테너 최원갑이 아리랑을 테마로 한 창작가곡 '신아리랑(김동진 곡)', '우리아리랑(강상구 곡)'을 들려준다. 평양음악무용대학교 황진철 교수가 작곡한 북한개량 단소협주곡인 '서도아리랑'은 서도민요인 '서도아리랑'의 밝고 흥겨운 선율을 주제로 서주의 중간부에 '긴 아리랑'을 삽입한 곡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와 스위스 바젤 스킨 라 칸토름(Bachelor of Arts, Alte Musik, Renaissance-Romantik)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 Master of Arts in Performance, Alte Musik, Renaissance-Romantik 과정에 있는 리코더 연주자 권호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으로 작곡가 박위철이 작곡한 창작관현악 '하나되는 아리랑'으로, 우리 민족이 지닌 선량함과 도전정신,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갈망을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일시** 7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7 여름마당 춤 축제 '춤바람, 신바람'



예술감독 김용철



©Park Sang Yun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여름, 지역민과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마련해온 '2017 여름마당 춤 축제'가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

'여름마당 춤 축제'는 그동안 마당춤 형식의 춤극으로 시민들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오다 지난해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신명을 담아낸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으로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 '여름마당 춤 축제'에서는 '춤바람, 신바람'이라는 타이틀로,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의 주요 레퍼토리를 야외무대에 맞게 재구성, 새롭게 선보인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춤바람 신바람'은 올해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무용단의 브랜드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춤바람, 신바람'은 대중적인 음악을 통해 우리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무대로, 남녀노소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2017 여름마당 춤 축제'의 시작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무대 '태평소와 사물놀이'로 꾸며진다. 썰매리, 장구, 북, 징 등 네 가지 악기가 빛어내는 다양한 장단에 흥겨운 태평소 가락이 어우러져 신명넘치는 무대가 펼쳐진다. 이어서는 한량무와 산조춤을 한 폭의 풍속화로 이미지한 '대장금', 굿거리 장단에 노니는 해학적 몸짓을 담은 '선녀와 나무꾼', 이별을 슬픔을 처절하면서도 애잔한 몸짓으로 그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

여'가 무대에 오른다.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배와 갈매기의 이미지로 형상한 '타이타닉', 영혼과의 사랑이야기를 패러디한 남성 코믹댄스 '사랑과 영혼'이 영화주제곡과 함께 무대에 펼쳐지며, 작곡가 황병기의 가야금 독주곡 '밤의 소리', '침향무'에 춤사위를 얹은 산조 '춘설'도 관객과 만난다.

봉산탈춤 중 '미알과장'을 소재로 한 무용극 '늙은 여자'는 다양한 춤 장르와 소리,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원작에서 드러나는 그릇된 사랑에 대한 풍자보다는 용서와 화합을 춤사위에 담아내며, 극 중 '늙은 여자'로 대변되는 미알할멈을 통해 한국인의 낙천적인 성격과 여유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다. 마지막 작품은 민요와 춤가락 '꽃타령, 뱃노래'로 신명난 민요 가락에 몸을 실어 관객과 함께 '춤바람, 신바람'의 무대를 펼친다.

예술감독 / 김용철  
 훈련지도 / 서정숙  
 출연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출연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일시 7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8: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야외마당(우천시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입장료 무료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써머 판타지-가요합창음악회



지휘 전진



사회 정희정



부산시립합창단

매년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 '써머 판타지' 2017년 무대가 7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 '써머 판타지' 무대에서는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인 '가요합창음악회'로 꾸며진다. '가요합창음악회'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선보였던 '7080 가요합창음악회'에서 진화된 형태의 공연으로, 그동안 하나의 테마가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올해 '가요합창음악회'의 주인공은 한국 발라드계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가수 이문세. 지난 19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이문세-변진섭-신승훈-조성모로 내려오는 가요계의 발라드 황제 계보의 최선두에 위치한 가수로, '표현력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수많은 명곡을 자기 스타일로 해석,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활동하던 당시 음반 수록곡의 대다수가 히트곡이 되는 전례를 남기면서 음반의 완성도뿐 아니라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작곡가 이영훈과 함께 작업한 음반 4집과 5집은 대중가요 100대 명반 중 16위, 50위에 각각 랭크되어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현재 KNN 아나운서로 있는 정희정의 사회, 기타리스트 윤태현, 홍광현, 드럼주자

김진훈의 특별출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이 지나 가면, 깊은 밤을 날아서, 그녀의 웃음소리, 옛사랑, 이별이야기, 소녀,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 파랑새 등 그의 대표곡들을 사랑, 이별&추억, 회상, 인생(삶) 등 4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 들려준다.

### 프로그램

오프닝 / 조조할인

사랑 / 사랑이 지나가면, 깊은 밤을 날아서, 모르나오  
이별, 추억/사랑 그렇게 보내네, 그녀의 웃음소리, 옛사랑  
회상 / 이별이야기(듀엣), 소녀(남성합창),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여성합창)  
인생(삶) / 나는 행복한 사람, 파랑새, 알 수 없는 인생

지휘 / 전진

사회 / 정희정(KNN 아나운서)

특별출연 / 기타리스트 윤태현, 홍광현, 드럼주자 김진훈

일시 7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울속도문화회관이 부산지역 오페라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울속도 오페라 축제 2017년 무대가 7월 7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2015년 부산지역 최초로 오페라 축제를 개최, 지역 문화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울속도문화회관은 올해도 울속도문화회관이 직접 제작한 창작오페라 '윤희신'을 비롯해 그동안 매년 10여회 이상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며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폭스컴머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서부경남 유일의 오페라단인 경상오페라단의 '돈 파스칼레', 클래식단체 더 클래식(The Classico)의 '라 트라비아타', 그리고 국립부산국악원의 어린이음악극 '오늘이', 서울인형극회의 노래하는 인형극 '신데렐라'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울속도문화회관이 지난 2015년부터 준비해온 창작오페라 '윤희신'은 울속도문화회관이 자리한 사하구의 역사적인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항거해 다대성을 지키다 순절한 다대첨사 윤희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패기 넘치는 지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주역인 윤희신 역의 테너 이정원, 허동권, 김충희를 비롯해 소프라노 전지영, 김나영, 구민영, 김우영, 김조은, 바리톤 임성욱, 안세범, 테너 임성욱, 우원석 등 실력있는 성악가들 외에도 로얄오페라합창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장미여성합창단, 나드림미션콰이어, 그리고 최정화무용단과 극단 미지가 참여해 작품의 깊이를 더해준다. 특히 오페라



## 제3회 울속도 오페라 축제

7.7<sup>금</sup> / 7.22<sup>토</sup>

울속도문화회관 대 · 소공연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소공연장 공연 전석 1만원)  
울속도문화회관 220-5805, 5812

폭스컴머오페라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7월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후 4:00 대공연장

서울인형극회 노래하는 인형극 '신데렐라'  
7월 8일(토) 오후 3:00 소공연장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어린이음악극 '오늘이'  
7월 12일(수) 오전 11:00 대공연장

경상오페라단 오페라 '돈 파스칼레'  
7월 14일(금) 오후 7:30,  
15일(토) 오후 3:00, 7:30 소공연장

울속도문화회관 창작오페라 '윤희신'  
7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2:00, 6:00 대공연장

더 클래식 Compact Opera '라 트라비아타'  
7월 22일(토) 오후 4:00 소공연장

최초로 홀로그램과 3D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도입, 입체적인 무대와 시각적 효과로 볼거리를 더해준다.

오페라 축제의 시작은 폭스컴머오페라단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장식한다.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창단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폭스컴머오페라단은 올해부터 부산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면서 부산 아티스트들의 예술 활동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중 하나인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더 클래식코가 공연시간은 줄이고 해설을 덧붙여 모든 세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Compact Opera로도 감상할 수 있다. 더 클래식코는 유럽 클래식음악 대중화의 시작이었던 이탈리아 클래식(Classico)처럼 '수준 높은, 친근한 클래식'이라는 공연 컨텐츠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난해 설립된 후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시작으로 '신데렐라', '사랑의 묘약' 등을 무대에 올려온 경상오페라단은 이번 무대에서 구두쇠를 소재로 한 도니체티의 3막짜리 희극 오페라 '돈 파스칼레'를 선보인다.

이밖에 국립부산국악원이 미래의 관객을 위해 준비한 어린이음악극 '오늘이'는 제주신화 '원천강 본풀이'를 바탕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오늘이의 신비로운 여행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또, 1961년 KBS-TV 개국과 함께 창단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형극단인 서울인형극회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노래가 있는 인형극으로 제작한 '신데렐라'를 선보인다.

# ASSITEJ in Gijang

어린이에게 꿈의 권리를!

## 제1회 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

7월 15일(토)~8월 6일(일) 가마골소극장, 안데르센극장, 차성아트홀,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  
극단 가마골 728-0993, [blog.naver.com/jihye5225](http://blog.naver.com/jihye5225)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의 다양한 아동청소년극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1회 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가 7월 15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유엔 산하의 유일한 아동청소년문화단체인 아시테지 한국본부와 기장의 가마골 소극장, 안데르센극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연극운동을 준비하는 극단 가마골이 함께하는 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는 특히 기존 공연예술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영유아, 청소년을 아우르는 아동·청소년극 전문축제로, 3주 동안 다채로운 가족극의 세계가 펼쳐진다. 특히 극단 가마골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아시테지 한국본부와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면서 매년 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를 개최, 세계의 고품격 공연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전문극장인 안데르센극장을 전진기지로, 기장을 아동청소년극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올해 첫 축제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기장의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극단 신바람의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을 개막작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베트남의 수중인형극인 '츄테우의 고향'을 폐막작으로 총 11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 program

####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 '운동주, 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한국]

7월 8일(토), 22일(토) 오후 2:00, 5:00 차성아트홀

2017년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극단 가마골이 제작한 고품격 레퍼토리. 운동주가 죽기 하루 전날의 이야기를 상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운동주의 시를 노래화한 창작뮤지컬이다. (8세 이상 관람가)

##### 개막작 판타지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한국]

7월 15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16일(일) 오후 3:00 안데르센극장

축제가 열리는 기장의 어린이들이 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는 무대.(3세 이상 관람가)

##### 가족뮤지컬 '안데르센'[한국]

7월 18일(화)~20일(목) 오후 3:00 안데르센극장

자신의 결핍을 희망으로 극복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창작, 불멸의 작가가 되었던 안데르센을 통해 아동청소년연극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안데르센극장의 대표 레퍼토리. (3세 이상 관람가)

##### 무용극 '어머나 땀뿔!'[프랑스]

7월 22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23일(일) 오전 11:00 안데르센극장

투르국립무용원이 제작한 춤극으로, 4명의 무용수들이 섬 없이 춤을 추면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몸의 감각의 일깨워준다.(전체 관람가)

##### 놀이체험극 '인사이드 아웃'[미국]

7월 25일(화)~27일(목) 오전 11:00,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6개월 이상 영아들부터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두 명의 배우가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독특한 형태의 놀이 체험극이다.(6개월 이상 관람가)

##### 오브제 음악극 '마야, 전설의 새'[멕시코]

7월 29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30일(일) 오전 11:00 안데르센극장

멕시코의 설화 이야기가 멕시코의 전통음악과 만나 펼쳐지는 오브제 음악극.(3세 이상 관람가)

##### 갯마을 축제와 함께하는 특별무대 '심청이야기'[한국]

7월 30일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시간 미정)

밀양어린이음악극단 '반달'이 꾸미는 특별한 무대로, 우리가 아는 심청 이야기가 아닌 전남 곡성의 심청설화 속 흥장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들려준다. (3세 이상 관람가)

##### 햄릿, 연극놀이 '스펀지가 말을 한다'[독일]

7월 31일(월)~8월 1일(화) 오후 3:00, 7:30 가마골소극장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스펀지인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쉽지 않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전달, 삶에 대한 성찰을 길러준다.(5세 이상 관람가)

##### 전통한지연희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한국]

8월 2일(수)~3일(목) 오전 11:00,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한지인형으로 선보이는 오브제극이자 우리의 전통악기 연주로 들려주는 고품격 라이브 음악극.(3세 이상 관람가)

##### 매직스크린 상상가족극 '오버코트'[한국]

8월 5일(토)~6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아시테지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 연출상, 최고인기상을 수상한 수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아동청소년연극 축제에 아시아팀 최초로 초청받아 화제가 된 작품. 육아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를 그린 오감체험극이다.(1세 이상 관람가)

##### 폐막작 수중인형극 '츄테우의 고향'[베트남]

8월 5일(토)~6일(일) 오후 3:00 안데르센극장

베트남 전통음악에 맞추어 수조를 누비는 다양한 인형들이 장관을 이루는 수중인형극.(0세 이상 관람가)



# 제12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 달라도 좋아 We are All Unique!

발칙하게 생각하고, 당차게 말하며, 영상을 통해 거침없이 표현하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화 축제 '제12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 이하 BIKY)'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콘텐츠코리아랩에서 펼쳐진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지난 2005년 프레스티벌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은 BIKY는 지난 2014년까지 국제어린이영화제로 운영해오다 2015년, 영화제 창립 10주년을 맞아 만18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 가족 중심의 대중적 영화축제로 거듭났다. 2015년부터 매년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라는 주제로 획일화된 교육,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화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여온 BIKY는 올해도 전 세계 40여 개국 170여 편의 작품을 초청, 관객들과 만난다.

BIKY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공식 경쟁부문인 '레디~액션'에서는 지난 봄, 공모를 통해 출품된 총 279편 중 총 40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어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부문 106편, 청

**7월 12일(수)~18일(화)**

영화의전당,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일반상영작 6천편  
(개·폐막작 7천편, 프리페스ID 2만5천편, 레디~액션, 리문더버키 무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www.biky.or.kr



소년 부문 174편이 출품되어 이 중 어린이 부문에서는 '나 홀로 사춘기(정수빈 감독)' 등 20편, 청소년 부문에서는 '차카게 살재(심우재 감독)' 등 20편이 선정되어 영화제 기간동안 상영된다. '레디~액션!' 심사는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청소년집행위원 비키즈(BIKies)와 전년도 '레디~액션!' 수상자가 심사를 맡아 수상자를 결정한다.

비경쟁부문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새로운 감성의 세계로 안내할 큰나라모음(장편 초청작)과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은나라 모음(단편초청작), 그리고 국내외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화로 꾸며지는 '리본 더 비키(ReBorn the BIKY), 여름밤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상영작으로 마련되는 '야외극장-달빛별빛', BIKY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 BIKY 특별전에서는 '내가 꿈꾸

는 로봇'이라는 테마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로봇을 주제로 한 영화를 특별초청, 상영하는 한편, 영화제 기간 동안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공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함양을 위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결합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한다. 또, '야외극장-달빛별빛'에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여름의 평창'이라는 테마로,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상영된다. 이밖에 자막 읽기가 어려운 6세~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성우가 극장에서 직접 자막을 읽어주는 라이브더빙 영화도 영화제 기간 만날 수 있다.

올해 BIKY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상영 외에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전문가의 지도로 애니메이션 영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애니메이션 더빙체험 프로그램

'나도 성우대!', 하루 만에 영화 한 편을 만들어보고 상영회까지 갖는 필름 메이킹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네마 스포츠', 만 8세 이하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그려온 자동차를 부모님과 함께 만들고 그 속에서 영화도 관람하는 '내 손으로 만드는 자동차극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또, 세계 10여 개국 영화 관계자와 교육자들이 모여 주제별 청소년 미디어경험을 공유하고 어린이, 청소년 영화연대를 활성화하는 국제 네트워킹 자리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포럼', 부산아시아영화학교와 국내외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단편영화제 작위크숍인 '부산국제청소년영화캠프' 등도 영화제 기간 진행된다.

2017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식은 7월 12일, 폐막식은 7월 18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최된다.

## 전체로 하나가 된 어우름의 무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6회 정기공연 '춤, 인상(印象)'



©Park Sang Yun

◆ 심정민 무용평론가 · 비평사학자

빛에 따라 여러 형상과 색채를 띠는 인상주의 회화처럼, 춤과 그 주변 움직임이 다양한 모습으로 무대를 수놓는다. 5월 25-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었던 부산시립무용단의 제76회 정기공연 '춤, 인상(印象)'은 무언가 알록달록한 공연이다. 한국무용의 전통과 창작뿐 아니라 여러 대중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음악, 의상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첫 장면은 사람이나 인형의 형태를 뒷막에 그림자로 비추면서 시작된다. 파니에 처럼 부푼 치마를 입은 여인들이 단아한 매력을 흘리면서 무대를 채워간다. 봄날 피꼬리 소리를 그린 춘앵전을 추는 그녀들 뒤로는, 꽤 높은 단상 위에 오방처용무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다섯 명의 처용이 무희들을 내려다보는 듯하다.

이후 남녀 무용수가 사랑이라는 소재를 섬세하고 자유로운 한국창작춤사위로 표현한다. 그리고는 흰색 드레스를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황병기의 가야금 소리에 맞춰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산조를 춘다. 한국무용에서 군무진이 정박을 고수하는 일체적 동작을 지속할 때는, 춤추는 몸의 밀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약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춤의 응집력이 급속

히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쯤 되면 하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여러 춤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갈라 형태의 공연임을 알 수 있다. 2막에 들어서서는 더욱 나아간다. 한국무용과 함께 대중적인 움직임이 교차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고놀이와 같은 민속무로 시작해서는 태권도, 줄타기, 팝핀 등 보다 대중적인 움직임을 현란하게 펼쳐놓았다.

피날레는 붉은 장삼, 검은 장삼, 흰 장삼을 착용한 대규모 군무에 의해 장식된다. 큰 무리를 이룬 무용수들이 무당춤 같은 제의무라든가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같은 의식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현란한 춤사위가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전체로 하나의 아우름의 미(美)를 보여준 이 장면에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모두와 함께하려는 김용철 예술감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줄타기 장치를 세우는 시간에 카메오처럼 등장한 김용철은 순식간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용수로서 전성기를 훌쩍 넘겼고 근래 들어 훈련이 채 되지 않은 몸으로 움직였으나 무대 장악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 이상이었다. 반어적으로 보자면, 현역 단원들의 분발이 요

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인상(印象)'은 한국무용의 전통을 이루는 궁중무, 민속무, 제의무, 의식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군데군데 새로운 창작도 덧붙여 놓았다. 여기에 객원무용수들의 줄타기, 태권도, 힙합 등이 삽입되어 있다. 음악의 경우,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노래에다가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흥겨운 타악 리듬까지 합세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퓨전 한복 역시 작품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었다. 다만, 김용철 특유의 화려하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의상이 재질이나 디자인에 있어 상당히 격하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부족에서 기인할 것이다.

김용철 예술감독은 작년 대규모 버전의 '업경대'에서 예술적 총체성과 완성도를 보여준 한편 이번 '춤, 인상(印象)'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을 모두 아우르면서 춤과 그 주변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인상을 갈라 형식의 공연으로 펼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체로 하나가 된 어우름의 무대를 실현하였다.

##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휘, 브람스를 즐길 줄 아는 관객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 530회 정기연주회 ‘임헌정과 브람스’



◆ 김옥균 클래식음악해설가 · 전 MBC PD · 시인

### 듣기에는 멋있지만 연주하기는 어려운 2중 협주곡 작품 102

실제로 모든 악기 중에서도 가장 선율적이며 그러면서도 가장 변화가 풍부한 바이올린과 첼로를 독주 악기로 하고 또한 이 2개의 악기에 높은 기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주곡은 호흡이 맞고 또한 훌륭한 기교를 가진 두 사람을 연주자로 쓰지 않고는 전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이날의 Double Concert(이중협주곡) 협연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씨와 첼리스트 이강호 씨의 협연은 너무 ‘개성’이 서로 강해서인지 처음 1악장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은 것처럼 조금은 불안했으나 1악장이 끝나고 2악장부터, 잠시 첼로 솔리스트가 ‘조율(tuning)’을 다시 하고부터는 제 페이스를 찾아 2악장부터 3악장까지 잘 맞춰 나갔다. 각자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바쁜 시간적인 스케줄 속에서 호흡을 맞춘 까닭에 연습량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국제적인 무대 활동을 보여주듯 수차례의 커튼콜에 답하는 무대 매너가 돋보였다.

### 지휘자 임헌정 씨의 카리스마가 묻어난 힐링교향곡

휴식 시간이 끝나고 연주한 브람스의 4번 교향곡부터는 무대 위의 ‘지휘자 단상’과 스코어(총보)를 놓는 ‘보면대’가 사라졌다. 지휘자 임헌정씨는 그만의 신중하고 완벽한 해석으로 전 악장을 ‘암보(摘樂譜)’로 지휘했다. 1악장의 서주 부분부터 관객은 이미 ‘지휘자 임헌정표 상품’을 신뢰하기라도 한 듯, 지휘봉에 눈과 귀를 맞추며 브람스의 4번 교향곡을 즐겼다. 열정이 넘치는 지휘에서 마치 몇 해 전 타계한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장중한 레가토의 물결과 현악기 파트의 피치카토의 유연함에 함께 춤을 추는 듯 브람스의 음악을 진정으로 즐겼다. 카리스마 넘치는 임헌정 씨의 지휘로 연주한 브람스의 비장미 넘치는 교향곡 4번은 치료용 힐링음악으로는 최상급의 처방약이었다. 단조로 된 교향곡인지라 외부로 향한 외침보다는 브람스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그

깊은 고뇌와 안으로 타오르는 그 처절한 내연(內燃)의 불꽃의 심포니, 브람스가 작곡한 교향곡 4번은 일상적인 스트레스까지 날려 보내주는 양질의 스트레스 해방구 역할까지 대신하면서 관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게 했다.

### 세련된 마니아 관객들과 황홀한 앙코르 곡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객석을 가득 매운 관객의 모습부터가 흐뭇하고,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노년층 관객과 중년의 부부관객 등 ‘브람스 마니아’들도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았다. 브람스의 교향곡 연주가 끝나고 이어진 앙코르 곡은 상상의 허를 찌른 선곡으로 감동의 물결이었다. 앙코르 곡으로는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 혹은 ‘헝가리 춤곡 5번’ 정도를 준비하지 싶었는데 전혀 엉뚱한 곡을 선곡했다. 바로 영국(이일랜드)의 포크송 ‘아 목동아(Danny Boy)’를 연주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하였고 현악기만으로 연주되는 부드럽고 황홀한 앙코르곡 ‘아 목동아’를 관객들은 물론, 쉬고 있었던 관악기파트 연주자들도 임헌정 씨의 지휘에 마음속으로 노래로 따라 부르는 것 같았다.

지난해에 타계한 첼리스트 겸 세계적인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는 “모든 예술가들을 포함해서 우리 음악가들은 강력하고 성스러운 언어를 관리한다. 우리는 그것을 물질적 변화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르농쿠르의 이 말처럼, 현대의 물질적 변화 속에서도 클래식 음악인구의 저변확대와 감동의 원천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공연의 이모저모를 위하여 기획하고 준비하는 부산문화회관 관계자들에게 팬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큰 울림의 박수를 보낸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기타공연장

### 제47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 할인)  
**문의**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 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4년 부산 민간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서울 예술의전당 신년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2006년, 2007년,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축하공연을 비롯해 2007년, 2014년 부산국제합창제 전야 대음악회, 2008년, 2012년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등 국제적 행사 무대에 다수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강원대학교 교수이자 현악양상블 The Bridge 예술감독으로 있는 따뜻하고 유려한 음색의 바이올리니스트 성경주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77', '교향곡 제3번 작품 90'을 들려준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1회 정기연주회 미완성

**일 시** 7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세계적 명성의 브람스 국제지휘공쿠르에서 특별상, 게오르그 솔티 국제지휘공쿠르에서 홍콩 출신 최초 수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지휘자 초이 호만이 객원지휘하고 한국 음악계의 중견 피아니스트 김진호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

교향악단 제531회 정기연주회 '미완성'.

#### 프로그램

- 스메타나/나의 조국 중 '물다우'
-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 슈베르트/교향곡 제8번 '미완성'
- 림스키-코르사코프/스페인 기상곡
- 지휘/초이 호만
- 협연/피아니스트 김진호
- 객원악장/임재홍(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동아대학교 교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2회 정기연주회 한반도 아리랑 환타지아

**일 시** 7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2012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테마로 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2회 정기연주회 '한반도 아리랑 환타지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비상임단원 이소정, 평양코리아예술단 단원인 테너 김훈,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수석 남순천, 단원 최원갑, 리코더 연주자 권호진, 한울림합창단이 출연. 전통 아리랑에서부터 창작아리랑, 그리고 북한의 아리랑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최성환/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 이준호(편곡)/훈의 소리 아리랑
- 박위철(편곡)/압록강 2천리
- 박위철(편곡)/박연폭포
- 김동진(편곡)/지원새/신아리랑
- 강상구/우리아리랑
- 황진철/북한개랑 단소협주곡 '서도아리랑'
- 박위철/관현악 '하나되는 아리랑' [위주곡]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7 여름마당 춤 축제 '춤바람, 신바람'

**일 시** 7월 20일(목)~21일(금) 오후 8:00  
아외마당 (※우천시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여름, 지역민과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2017 여름마당 춤 축제'.

'춤바람, 신바람'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올해 '여름마당 춤 축제'에서는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신명을 담아낸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의 주요 레퍼토리를 아외무대에 맞게 재구성, 새롭게 선보인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춤바람, 신바람'은 올해 '문화회관 순회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무용단의 브랜드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예술감독/김용철 ● 훈련지도/서정숙
- 특별출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제15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010-9508-8700



지난 2002년 9월 부산 지역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청소년들로 결성된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현재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일반단원 70여 명과 명예단원 110여 명으로 구성된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주 일요일, 지휘자 정홍기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지도자와 함께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가 되는 하모니를 배워오고 있다.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주 정기모임 외에도 여름, 겨울방학 음악캠프를 통해 기량을 쌓아오고 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 지휘/정홍기
- 협연/남민우(클라리넷, 부산예고 1년)
- 윤재현(바이올린, 태종대중 3년)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써머판타지-가요합창음악회

**일 시** 7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매년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 '써머판타지' 2017년 무대. 한국 발라드계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가수 이문세의 대표곡들을 사랑, 이별&추억, 회상, 인생(삶) 등 4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들려준다.

#### 프로그램

- 오프닝/조소할인
- 사랑/사랑이 지나가면, 깊은 밤을 날아서, 모르나오
- 이별&추억/사랑 그렇게 보내네, 그녀의 웃음소리, 옛사랑
- 회상/이별이야기(듀엣), 소녀(남성합창),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여성합창)
- 인생(삶)/나는 행복한 사람, 파랑새, 알 수 없는 인생
- 지휘/전진 ● 사회/정희정(KNN 아나운서)
- 특별출연/가타리스트 윤태현, 홍광현
- 드럼주자 김진호

## 음악 | Music

### 2017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우크라이나 주립 부코비니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일 시** 7월 2일 일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S&D 010-9168-9434



매년 우크라이나와 국제 교류음악회를 가져온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가 우크라이나 주립 부코비니안 심포니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마련하는 2017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지난 1952년 우크라이나 주립교향악단으로 창단한 부코비니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유서 깊은 음악원 출신 연주자들로 결성되어 동유럽은 물론 이태리와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을 넘나들며 세계적인 무대에 서고 있다.

부코비안 필하모니 상임지휘자인 오셀 조잔스키와 현재 비엔나에서 지휘자로 활동 중인 김현국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윤희정, 김민경, 박애나, 소프라노 최주희, 테너 서상민, 플루티스트 최윤희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안현정 작곡발표회 XIII 독주곡의 饗宴(향연)

**일 시** 7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초대

**문의** 안현정 010-3833-077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부교수로 있는 작곡가 안현정 작곡발표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폴란드 크라코프 국립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안현정은 다양한 문화와 소리를 접하면서 전통의 소리와 현대적 감각으로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창작곡을 발표해왔다. 그동안 독주곡, 중주곡, 합창곡, 관현악, 정가곡, 무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온 안현정은 전통과 현대, 한국악기와 서양악기, 인성(人聲)과 기악(器樂), 논리와 감성 등 대립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음악적인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전곡 초연(개작초연)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다와 자연을 테마로 한 다양한 독주곡들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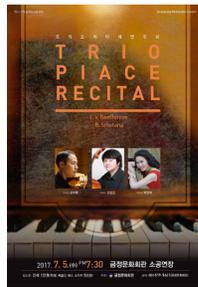
###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 5일 (제610회) 트리오 피아체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박정희,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오현진으로 구성된 트리오 피아체의 무대. 자유롭고 신선한 음악적 감성과 정확한 테크닉으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에게 피아노 트리오의 정수와 감동을 선사해온 트리오 피아체는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1 제3번', 스메타나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15'를 들려준다.

#### 12일 (제611회) 9인의 예술가와 함께하는 이야기 있는 '유럽 음악 여행'

소프라노 김한나, 테너 서훈하, 박정민, 김현성, 바리톤 오세민, 베이스 바리톤 양종근, 피아니스트 김란, 최은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중창단이 슈베르트, 드뷔시, 토스티 등 유명 작곡가의 가곡을 비롯해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 진행/배우 이찬술

### 제3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일 시** 7월 7일(금)-22일(토)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소공연장 공연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5812



을숙도문화회관이 부산 지역 오페라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3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주요일정**  
 폭스컴머오페라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7월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후 4:00  
 대공연장

- 예술감독/최강지
- 연출/김어진
- 연주/에프홀 체임버 오케스트라
- 합창/VK오페라 합창단
- 기획연출/김춘수
- 인형제작/안정의, 이여화, 이지아
- 인형연기/김춘수, 이여화, 안미나, 문혜정, 김귀분
- 지휘/전욱용
- 음악코치/정은정
- 대본구성/이하기

서울인형극회 노래하는 인형극 '신데렐라'  
 7월 8일(토) 오후 3:00 소공연장

#### 19일 (제612회) 최우선 클라리넷 귀국 독주회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일리노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클라리네티스트 최우선 귀국 독주회. 그동안 각종 콩쿠르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최우선은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이은정,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조무중, 비올리스트 김민경, 첼리스트 문주원과 함께 클라리넷의 중후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26일 (제613회) 나진주 재즈퀸텟 'Summer Jazz Concert Añorar'



재즈피아니스트 나진주를 중심으로 트럼펫터 김일환, 베이스리스트 유경훈, 기타리스트 이광현, 드럼주자 박성진, 보컬 루나수리로 결성된 나진주 재즈퀸텟의 무대. 한여름 밤 무더위를 잊게 할 감미로운 재즈무대를 선사한다.

####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어린이음악극 '오늘이' 7월 12일(수) 오전 11:00 대공연장

- 대본/조태준
- 연출/이병훈
- 작곡/황호준
- 음악감독 및 지휘/권성택(국립부산국악원 기악·성악단 예술감독)
- 협력연출/유한철

#### 경상오페라단 오페라 '돈 파스칼레'

7월 14일(금) 오후 7:30, 15일(토) 오후 3:00, 7:30  
소공연장

- 연출/최강지
- 지휘/전욱용
- 음악코치/정은정, 강지원
- 연주/VK체임버오케스트라

#### 을숙도문화회관 창작오페라 '윤홍신'

7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2:00, 6:00  
대공연장

- 작곡/지후/최천희
- 연출/김성경
- 예술감독/김원명
- 대본/김봉희, 임오섭
- 제작/김일택
- 음악감독/이소영

#### 더 클래식 Compact Opera '라 트라비아타'

7월 22일(토) 오후 4:00 소공연장

- 총예술감독, 해설/현미경
- 제르몽, 음악감독/최대우
- 바올레타/김나정
- 알프레도/장지현
- Piano acc/김유진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 부산리코더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8일 토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강희숙 010-2562-6561



소통하는 리코더앙상블과 음악교육을 꿈꾸는 부산리코더앙상블의 무대. 리코더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확고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외국 유명 연주자들과의 꾸준한 마스터클래스를 통해서 연주법과 해석법을 익히며 기량을 쌓아온 부산리코더앙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바로크곡과 클래식은 물론 가요,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해오고 있다. 올해로 결성 11주년을 맞는 부산리코더앙상블은 부산 연주회에 이어 7월 22일 서울에서도 연주회를 갖는다.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아르헨티나 그리고 피아졸라

**일 시** 7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바이마르 리스트 국립음대 연주자 과정(석사)을 졸업한 플루티스트 장예지,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상임지휘자, 폴리포니 기타 듀오 멤버로 활동중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경태,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비올리스트 김가민, 피아니스트 이혜경으로 구성된 솜블리 트리오가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7월 무대.

**프로그램**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푸홀/두개의 아이레스 카뮈베로스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 수아트홀 영아티스트 7월 콘서트

**일 시** 7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수아트홀  
**입장료** 초대  
**문의** 수아트홀 744-1415



지난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가져온 해운대 수아트홀이 마련하는 영아티스트 7월 무대. 소프라노 김서영, 권혜은, 정지민, 강윤, 박채원, 이승민, 김민희, 권주은, 메조소프라노 강승경, 테너 박민규 등 10인의 젊은 연주자들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사랑의 노래  
김주원/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슈베르트/클레르현의 노래  
벨리니/오페라 '카롤렛과 몬테규' 중 '아아, 몇 번인가'  
R. 스트라우스/내 안에 사랑을 담아 등 수록

### 백동훈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7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백동훈 010-3325-8729



부산예고 재학 중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영재음악원에 입학, 음악수업을 받은 후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파리 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석 입학,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독주회. 동아음악콩쿠르에서 입상 후 금호 영 아티스트에 선정되어 초청 독주회를 가진 바 있는 백동훈은 지난 2016년 11월에는 을숙도 명품 콘서트에 초청되어 비르투오조 앙상블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20세기의 세계 음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초,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클라리네티스트 베니 굿맨을 기리며 그에게 헌정됐던, 또는 그의 의뢰로 세상에 나오게 된 클라리넷 레퍼토리들로 꾸며진다.

- 피아노/김란
- 우정출연/바이올리니스트 김유리

###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가족오페라 I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동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일 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수많은 연극과 영화,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헨젤과 그레텔'을 새로운 장르인 오페라 버전으로 만날 수 있는 금정문화회관 가족오페라 첫 번째 무대 '헨젤과 그레텔'. 오페라공연 전문단체인 드림문화예술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형제 동화를 원작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펼쳐진다.

- 지휘/정금련
- 연주/드림문화오페라 오케스트라, 행복소리중창단
- 출연/소프라노 구현진, 신민원, 엄남이, 김현지, 바리톤 윤풍원, 소프라노 안지형, 김수진

### 엘미소 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내가 너를 아노라

**일 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심지현 010-3863-3678



수영로교회 사랑부예 소속된 지적, 지폐성 장애인들로 구성된 엘미소 오케스트라의 9번째 정기연주회. 장애라는 편견을 넘어서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와 소통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엘미소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창단 모임을 시작, 지금까지 매년 정기연주회와 향상음악회를 중심으로 2011년 부산 컴패션 식전 행사, 2012년 부경 장영 세미나 초청연주, 제140회 MBC목요음악회, 2014년 대동병원 연주, 2016년 부산남구청 주최 대동골 문화센터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사회, 진행/김도림 목사
- 바이올린/김상모 ● 테너/원오한

##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가족오페라II 창작오페라 '봄봄&아리랑 난장곳'

**일 시** 7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김유정의 동명소설의 해학과 풍자를 담아낸 창작오페라 '봄봄'과 마당놀이 형식의 전통연희 '아리랑 난장곳'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금정문화회관 가족오페라 두 번째 무대. 원작소설의 탁월한 언어 감각과 극적인 구성을 우리 전통의 놀이판 형식과 서양 오페라의 어법으로 풀어낸 '봄봄'은 시골남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을 주제로, 토속적인 무대와 우리민족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담은 아리아, 디재로운 타악기의 리드미컬한 연주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친다.

- 원작/김유정 ● 대본, 작곡/이건용
- 총예술감독/안지환
- 상임지휘/박인욱 ● 연출/김태웅
- 출연/전병호, 한정성, 박상욱, 공미연
- 사물놀이/전통연희단 꼭두쇠
- 오케스트라/코리아필모스오케스트라

## 제1193회 MBC목요일음악회 퓨전앙상블 '여름 그리고 향기'

**일 시** 7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퓨전앙상블 010-3994-4674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을 리더로,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앙상블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퓨전앙상블의 4번째 정기연주회. 개인 연주자의 뛰어난 음악해석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악기를 잘 조화시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결성된 퓨전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여름 그리고 향기'라는 주제로 우리 귀에 친숙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퓨전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 바이올린/백재진 ● 오보에/박종관
- 피아노/서혜리 ● 소프라노/구민영
- 가야금/이명일 ● 해금/최유리
- 소리/강은미 ● 장구/박재현
- 편곡 및 해설/정희영
- 스페셜 게스트/첼리스트 김주희

## 2017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오케스트라 하모니로 적어 보내는 편지 음악회

**일 시** 7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 605-5116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교문청소년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지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창작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선별, 그에 따른 악곡과 연관된 스토리텔링을 들려주는 색다른 무대로, 모차르트와 그의 아버지가 주고 받은 편지글과 관련된 앙상블곡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를 비롯해 괴테의 문학작품 '파우스트'와 연계시킨 관현악곡 '파우스트', 작곡가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 감성을 충만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제13회 부산 리더스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with 영도 유스 플루트 앙상블

**일 시** 7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010-8633-4792)



부산, 경남지역의 플루트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플루트 연합의 열정 넘치는 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 리더스 플루트 앙상블의 무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매년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를 선보여온 부산 리더스 플루트 앙상블은 올해, 게스트 지휘자로 활동하다 상임 지휘자로 합류한 조완수 지휘자의 지휘로 플루트 앙상블만의 특별한 매력을 들려준다.

- 지휘/조완수
- 진행 및 해설/김여영
- 현연/김성민(플루트)
- 게스트 싱어/박준혁

## 시대를 초월하는... 정소희 대금독주회 진화 III

**일 시** 7월 19일 수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초대  
**문의** 정소희 010-6268-9735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수석으로 있는 대금주자 정소희가 대금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하는 전국투어 두 번째 무대.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음색을 소유한 대금주자 정소희는 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악 및 동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동안 12차례 독주회 및 다수 협연 무대를 통해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왔다.

자신만의 창작음악 세계를 표현한 '진화(進化)'라는 주제로 지난 2009년 독주회를 개최한 바 있는 정소희는 이번 무대에 '시대를 초월하는...'이라는 부제로 각 시대를 이끌었던 대금창작음악 연주를 통해 대금 창작음악사의 변천을 소개한다.

- 가야금, 양금/최윤진(연세대대학교 교수)

## BNK부산은행 창립50주년 기념 제5회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일 시**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영화회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BNK부산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www.happybnk.co.kr 무료 배부)  
**문의**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661-4831



BNK부산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젊은 음악인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예술발전에 앞장서고자 국내외 유명 교수진과 함께 마련한 제5회 BNK부산은행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프로그램**  
드보르자/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2 제1악장  
사리사데/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모차르트/바순협주곡 작품 191 제1악장  
로시니/도둑까지 서곡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 예술총감독/오충근
- 관악지휘/이정생 ● 현악지휘/다니엘 S김
- 협연/최영진(바순)

연극 | Play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코믹연극 '크레이지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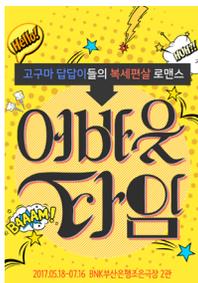
**일 시** 5월 12일(금)~7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서면 AN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미니켓 1600-1716



정신의학계의 엘리트 유희파 천재 왕진에 박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한 왕진에 박사는 무로로 진행되는 치료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자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중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자신까지 환자로 위장해 5명의 중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코믹극 '크레이지 투-올드미스 닥터 왕'은 각종 중독 증세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강력한 캐릭터와 그들을 이끌어 가는 올드미스 닥터 왕진에 외의 요절복통 좌충우돌 사건들이 빠른 극 전개와 탄탄한 스토리, 신나는 퍼포먼스로 펼쳐진다.

연극 '어바웃타임'

**일 시** 5월 18일(목)~7월 16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00, 4:3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썸타다 속타는 이 세상 모든 연애고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연극 '어바웃타임'.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밀당 하수 인호가 그의 새로운 담당 간호사인 밀당 고수 시은의 짝사랑 고백자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어바웃타임'은 요즘 대한민국 남녀의 가장 뜨거운 연애 트렌드인 썸을 다루면서 현실에 있을법한 다양한 에피소드로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 원작/박정인  
 ● 각본, 연출/김경미

코믹연극 '보잉보잉'

**일 시** 5월 25일(목)~7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10년, 2011년 2년 연속 골든티켓어워드 연극부문을 수상하며 장기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코믹연극의 대표작 '보잉보잉'. 세 명의 약혼녀와 만나고 있는 바람둥이 성기는 약혼녀 모두가 다른 항공사에 근무하는 스텝이므로, 미리 그녀들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시간표를 작성해서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시간대별로 약혼녀들을 만난다. 하지만 폭풍으로 약혼녀들의 비행 스케줄이 꼬이면서 성기의 세 다리 로맨스도 꼬이기 시작하고 결국 세 명의 약혼녀가 한집에 모이게 되는데... 과연 성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연극 '이프온리'

**일 시** 5월 26일(금)~8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3일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프온리'. 재운과 수진은 결혼 준비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 재운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진은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때 나타난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삼일 동안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되지만 막상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독특한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 '이프온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그녀, 보내고 남는 그녀(그)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  
 ● 작, 연출/이민혁

2017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in BUSAN

**일 시** 6월 14일(수)~7월 11일(화) 공간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극단 어니언 611-8518



부산의 극단 어니언 킹을 비롯해 극단 한울림(대구), 극단 놀자(대전), 극단 도모(춘천),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구미), 극단 명태(전주),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지역극단들이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와 관객들의 보다 다양한 공연관람을 위해 마련한 '2017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부산무대.  
**광주 푸른연극마을 '오월의 석류'**  
 7월 4일(화)~5일(수) 오후 8:00  
 광주 푸른연극마을의 '오월의 석류'는 한 가족의 아픈 상처를 통해 5·18민주혁명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감동적으로 증언한다.  
 ● 작/양수근 ● 연출/최창우  
 ● 출연/이대금, 윤미란, 오성완, 이세로미, 양승주

전주 극단 명태 '연가'  
 7월 7일(금) 오후 8:00, 8일(토) 오후 5:00  
 극단 명태의 우리 뮤지컬 만들기 아홉 번째 작품으로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연가'. 극단이 소재한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지역 브랜드 공연으로, 20곡이 넘는 뮤지컬 넘버와 화려한 무대 메커니즘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김선희 ● 연출/최경성  
 ● 출연/박나래미, 최옥로, 최상해, 양상아, 김연재, 심소형, 최소연, 최기현, 한성명, 김연준, 이승준 외

극단 후암 '흑백다방'  
 7월 10일(월)~11일(화) 오후 8:00  
 2017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초청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극단 후암 '흑백다방'. 한국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오늘날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 작, 연출/차현석  
 ● 출연/정성호, 윤상호



## 가마골소극장 개관공연 신파극 '홍도야, 울지마라'

**일 시** 7월 7일(금)~23일(일) 화~목요일 오후 3:00,  
금~토요일 오후 3:00, 7:30/7월 일 오후 3:00,  
일~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65세 이상 경로 1만원  
**문의** 가마골소극장 723-0568



실현영극의 산실이자 부산에서 연극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가마골소극장이 기장에 새롭게 동지를 틀고 개관기념공연으로 마련한 신파극 '홍도야, 울지마라'.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전용극장이었던 동양극장을 중심으로 당시 유행했던 신파극 중에서도 최다 관객을 기록한 '홍도야, 울지마라'는 주인공 홍도의 기구한 운명을 통해 관객들의 심금을 울린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정통 신파극이 지나는 격조 높은 화술과 호소력 있는 독백체 연기, 성격파 배우들이 펼치는 희극연기, 다양한 막간극 양식을 결합해 한국 대중극이 지니는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다.

● 재구성, 연출/이운택

### 무용 | Dance

##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시즌 3

**일 시** 6월 1일(목)~12월 30일(토)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월~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그랜드호텔 전용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시민은 1만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034



화려한 궁중예술과 영남 지역 전통 춤, 연희로 구성,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국립부산국악원 '왕비의 잔치' 시즌 3.

'왕비의 잔치'는 지난 2015년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으로 시작된 후 시즌 1, 2 총 300회의 무대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5만여 명이 관람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시즌3에서는 춤과 음악컨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 동래고무를 승전무로, 고성오광대를 가산오광대로 수정, 지역의 민속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한편, 궁중의 포구락 놀이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놀이적 요소와 관객과의 소통을 늘렸다.

● 재구성, 연출/이운택

##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SNAP)'

**일 시** 7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2016년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서 아시아 공연 중 최고의 공연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프로덕션상(Best Production Award)'을 수상한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SNAP)' 부산공연.

평론지 Broadway World로부터 "매년 프린지에 방문하지만 스냅과 같은 공연은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라는 리뷰와 함께 최고점인 별점 5점과 TOP 6 공연 및 최고의 마술 공연에 선정되는 등 극찬을 받은 화제작 '스냅(SNAP)'은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 이후 미국, 유럽, 남아프리카 등 해외 무대에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스냅(SNAP)'은 일루전, 미디어아트, 웨도우그래피, 블랙아트, 마임 등을 마술과 결합해 독창적인 무대언어로 풀어낸 작품으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마술적 상상력을 통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 2017 부산유치원연합회 동래분회 기획공연 발 없는 새

**일 시** 7월 5일(수)~6일(목) 오전 10:30,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박혜영 010-3858-3500



부산유치원연합회 동래분회가 주최하고 이태상프로젝트 HM Entertainment가 주관하는 창작무 '발 없는 새'.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와 아이들 간에 몰라서 발생하는 아동 간 성폭력의 문제를 소재로 한 이번 작품은 갈등과 분란, 더 나아가 일반화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를 되돌아보는 한편, 유년기가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준다.

● 예술감독 및 연출, 안무/이태상  
● 조안무/손영일

## 부산시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 버스정류장

**일 시** 7월 11일(화)~15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중국어권 작가로서는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가오싱젠(Gao Xingjian)의 희곡을 무대화한 부산시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 '버스정류장'.

지난 2010년 부산연극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연극인상'을 수상한 연출가 오정국의 객원연출로 무대에 오르는 이번 작품은 가오싱젠이 1983년 발표한 그의 대표적인 희곡으로, 동양의 전통사상과 정서를 현대 부조리극으로 형상화하면서 극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 예술감독/곽종필 ● 객원연출/오정국  
● 출연/정미란, 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이학우, 염지선, 김은옥, 서보기

### 영화 | Movie

## 시네마테크 기획전 마지막 침묵 : 1928년의 기억, 위대한 무성영화의 기억

**일 시** 6월 13일(화)~7월 9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무성영화의 걸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네마테크 기획전 '마지막 침묵: 1928년의 기억, 위대한 무성영화의 기억'.

1927년, 최초로 사람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 '재즈싱어'의 대성공과 함께 본격적인 유성영화의 시대가 도래했던 지난 1928년, 무성영화의 종말을 고하던 그 해 쏟아져 나왔던 위대한 무성영화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상영전에서는 '트루브나이의 집', '웃는 남자', '남쪽 바다의 하얀 그림자들', '웨딩 마치', '거리의 천사', '삶의 구걸' 등 국내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20편의 걸작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콘서트 | Concert

부산예술회관 작은 영화상영회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일 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전시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예술문화를 만날 수 있는 부산예술회관이 영화를 보다 깊이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작은 영화상영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마련되는 이번 상영회에서는 작품성과 예술성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하고 준비된 다과를 즐기며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영화 it 수다'를 통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일정**  
7월 29일(토) 이창(감독/알프레드 히치콕, 1957년 작, 미국)  
8월 26일(토) 은밀한 가족(감독/알렉산드로스 아브라나스, 2014년 작, 그리스)  
9월 30일(토) 아무르(감독/미카엘 하네케, 2012년 작, 프랑스)  
10월 28일(토) 화양연화(감독/왕기위, 2000년 작, 홍콩)  
11월 25일(토) 내 어머니의 모든 것(감독/페드로 알모도바르, 2000년 작, 프랑스)  
12월 30일(토) 연인(감독/장 자크 아노, 1992년 작, 프랑스)

● 진행/서명조(부산영화인협회 회장)

2017 거미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  
'STROKE' 부산

**일 시** 7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VIP석 12만 1천원, R석 11만원  
S석 8만 8천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산울림 김창훈과 블랙스톤즈  
0집 발매기념 콘서트  
ROCK TO THE FUTURE

**일 시** 7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예술지구79 금시락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딜라이트뮤직 010-8790-3556

씨니시보 제9회 정기공연

**일 시** 7월 15일 토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씨니시보 010-8246-8208

직장인밴드 씨니시보의 9번째 정기공연으로, '채순실과 함께하는 음악농단'이라는 부제로 7080기요에서부터 김광석 메들리, 락음악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행사 | Event

부산예술회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누리-愛' 수강생 모집

**일 시** 5월 20일(토)-11월 25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무료(선착순 모집, 기수별 신청 가능)  
**문의** 부산예술회관 621-3573, 612-1372  
www.bsart.or.kr



부산예술회관이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초등학생(3학년~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누리-愛' 부산예술회관 상주단체 인 극단 누리에가 한 기수당 4회 프로그램을 운영, 연극기초교육 및 연극놀이 등을 통해 연극의 이해를 돕는다.

- 일정**  
2기 6월 24일/7월 1일/7월 8일/7월 15일  
3기 7월 22일/7월 29일/8월 5일/8월 12일  
4기 9월 23일/9월 30일/10월 14일/10월 21일  
5기 11월 4일/11월 11일/11월 18일/11월 25일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25일 강좌 없음)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지난 3월 14일 600회를 맞은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7월에는 '음악에서 만난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 4일**(614회) 음악으로 사랑을 배웠네  
**11일**(615회) 세상을 품은 음악이야기  
**18일**(616회) 이달의 책 읽기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열린책들)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문화센터 부산본점 교양강의실  
**입장료** 월 4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회'를 기획, 연출한 전 MBC PD 김옥균이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해설강좌. 내 삶의 활력을 위한 클래식음악과 만나는 자리로, 클래식음악을 영상과 함께 알기 쉬운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1강 베토벤의 '코랄 판타지'와 베르디의 '합창음악'  
2강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새로운 공연 만나기  
3강 잘츠부르크 음악축제 이야기와 '모차르트 협주곡'의 만남  
4강 다시 보는 빅 콘서트-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의 '바덴 바덴 오페라 갈라' 콘서트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0강  
멘델스존과 슈만의 생애와 작품세계

**일 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이번 강좌에서는 초기 낭만주의 시대의 두 거장 멘델스존과 슈만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풍부한 인문

학적 자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를 담은 연주실황영상으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 우아한 용모와 세련된 사교성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음악가 멘델스존은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음악적 재능과 문학적 재능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로만티스트 슈만은 다양한 장르에서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렉처콘서트]

**일 시**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3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안옹복방  
**문의** 최정욱 010-3853-6634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인문학적 해설을 시도하는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 세계 리듬의 보고,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나라 '쿠바' 음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기획, 해설/예필 최정욱

## 제11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여름, 바다' 주제 시낭송회

**일 시** 7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서면 신세계안과 5층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회장 김옥균 시인 010-6367-0149

##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15강 여름특집 무서운 그림 이야기

**일 시** 7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 바티칸, 우피치미술관 등 이탈리아 현지 미술관에서 10년간 작품 해설을 해오다 지난 2016년 귀국, 예술강연강사로 활동중인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이

진행하는 예술기행 7월 강좌. 여름 특집으로 무섭고 오싹한 그림 이야기로 마련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화가 개인의 감정, 증오, 고통, 그리고 시대의 아픔이 묻어있는 클림트, 자크 루이 다비드, 테오도르 제리코, 르 브륄 등의 작품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본다.

## 반고흐 라이브 展

**일 시** 5월 11(목)-9월 30(일토)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초중고생 1만 2천원  
어린이 8천원  
**문의** ㈜리얼 미디어 741-3007

## 고은사진미술관 독일국제교류처(IFA) 해외교류전 바바바 클렘, 빛과 어둠

**일 시** 5월 20(일토)-8월 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55-746-0055

## 신사실파, 추상미술의 지평

**일 시** 5월 26(일금)-8월 1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김환기, 백영수, 유영국, 이규상, 이중섭, 장욱진 등 신사실파(新寫實派)와 그 동인들의 초기 작품을 통해 한국 추상미술의 시작을 알렸던 신사실파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 부산미술, 그 정체성의 출발 : 토벽동인

**일 시** 5월 26일(금)-8월 1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안창홍 개인전 '눈먼 자들(BLINDNESS)'

**일 시** 5월 26일(금)-7월 16일(일)  
조현화랑 부산점  
**문의** 조현화랑 부산점 747-8853



사회로부터 받은 소외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안창홍 개인전.

작가의 또 다른 모습이자, 사회에 대한 저항의 한 방법으로 보이는 가면울 소재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시선을 압도하는 가면 조각과 부조 작품 등 총 20여 점을 통해 작가의 한층 깊어진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 박진성, 한충석 2人展

**일 시** 6월 20일(화)-7월 28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친근하고 재미있는 표정을 가진 '아저씨'를 소재로 현대인의 이야기를 다양한 상황과 시선을 통해 작품에 담은 작가 박진성과 '부영이'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부영이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작가 한충석의 2인전.

## 임상빈 : 에네르지아

**일 시** 6월 29일(목)-8월 8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전관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 윤성옥 개인전 '회색 숲'

**일 시** 7월 10일(월)-7월 19일(수)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 에바 알머슨 개인전 'Beginnings'

**일 시** 7월 13일(목)-8월 6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윤인자 한국화전

**일 시** 7월 17일(월)-7월 23일(일)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 정윤태 조각 초대전

**일 시** 7월 25일(화)-8월 10일(목)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 RECORD

GM뮤직 제공



## 산데초키스가 지휘하는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 '햄릿' 모음곡, 피아노 협주곡 1번, 현악사중주 8번(챔버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 살리우스 산데초키스(지휘), 상트 페테르부르크 카메라타, 리투아니아 챔버 오케스트라, 티모페이 독시체르(트럼펫), 세르게이 솔로도브니크(피아노)

▶ 구소련의 명지휘자 살리우스 산데초키스를 기리는 추모 음반

지난 2016년 타계한 구소련의 명지휘자 살리우스 산데초키스를 기리는 추모 음반. 마르케비치를 사사한 산데초키스는 전형적인 러시아악파의 지휘자로, 리투아니아 챔버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카메라타 등을 직접 설립하여 리투아니아의 독립 이후 고국의 음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1990년대 중반에 녹음된 이 쇼스타코비치 녹음곡은 산데초키스의 진가를 확인해보기에 부족함 없는 연주들이다. 현악사중주 8번은 산데초키스가 직접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한 것이며, 피아노 협주곡 1번에서는 '트럼펫의 파가니니'라 불렸던 전설적 트럼펫 연주자 티모페이 독시체르가 트럼펫 솔로를 맡아 압도적 기량을 뽐낸다.



## 당 타이 손 Schubert:Piano Sonata No.21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21번, 알레그레토 다단조 D915, 12개의 독일 무곡

▶ 쇼팽콩쿠르 2차 최초 우승 '당 타이 손'이 발표하는 첫 슈베르트 앨범

지난 1980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Dang Thai Son)의 새로운 앨범. 지금까지 쇼팽 작품을 중심으로 드뷔시, 라벨, 차이콥스키, 멘델스존 등의 녹음을 남긴 당 타이 손은 2017년 5월, 대망의 새 음반이자 첫 번째 슈베르트 앨범을 발매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피아노 소나타 제21번', '알레그레토', '12개의 독일 무곡'까지 총 3곡으로 구성된 이 음반은 한국에서는 6월 5일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한 후 6월 20일 패키지 앨범으로 발매된다.



## 투첼로스(2CELLOS) 'SCORE'

투첼로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 유일무이한 꽃미남 듀오, 우리가 사랑하는 TV와 영화 속 명곡을 연주하다!

2대의 첼로로 전 세계를 중독시킨 21세기 크로스오버 음악계의 블루칩 투첼로스(2CELLOS)의 2017년 새 음반이자 네 번째 정규 앨범. 지난 2011년 첫 앨범을 발표한 후 여러 음악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곡 해석과 듣는 이를 몰입시키는 격정적 연주로 전 세계 크로스오버 음악 애호가들의 환호와 찬사를 이끌어낸 투첼로스는 이번 앨범에서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영화와 드라마 속 대표 명곡들을 들려준다. 왕자의 게임, 반지의 제왕, 브레이브하트, 러브스토리, 시네마천국, 레인맨, 티파니에서 아침을, 대부, 타이타닉, 디어 헌터, 말레나, 신들러 리스트, 불의 전차, 글래디에이터 등 총 14개 트랙이 수록되어 있으며, 세계적 명성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The London Symphony Orchestra)가 앨범작업에 함께해 음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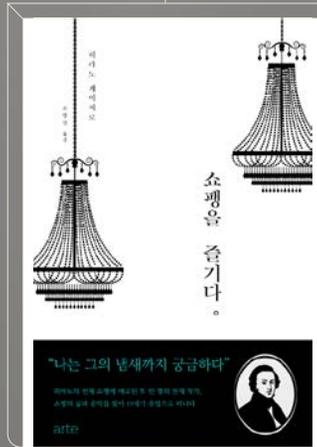
# BOOK



## 펜화로 읽는 한국 문화유산

김영택 지음 / 책만드는집 / 320p / 1만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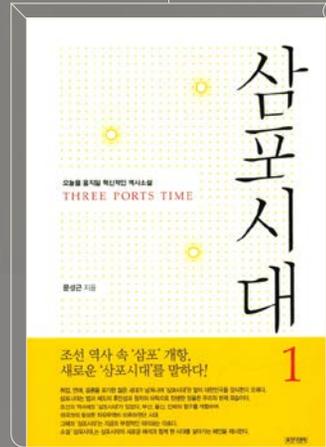
0.05mm의 가는 펜으로 전통 건축, 기왓장, 소나무 등을 그려온 '기록 펜화'의 대가 김영택 화백의 작품집. 전국을 돌며 기록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펜화 작품 96점이 담겨 있다. 김화백은 197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국제상표센터가 전 세계 그래픽 디자이너 중 탁월한 업적을 쌓은 탑 디자이너 54명에게 수여한 'DESIGN AMBASSADOR'에 국내 최초로 뽑혔으며, 1994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 로고디자인 비엔날레에 초대작가 및 연사로 초청된 바 있다. 그는 서구에서도 맥이 끊긴 펜화의 전통을 한국적 미감으로 재창조한 '한국적 펜화'의 명인이다. 이 책은 10년간 <중앙일보>와 <주간조선>에 연재된 글과 펜화를 책으로 묶은 것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기행문집이자, 답사기, 여행 에세이기도 하다. 창덕궁 부용정, 담양 소재원, 양산 통도사 등 소중한 우리 문화재와 전통 건축물의 자연 풍광을 펜화로 감상할 수 있다. 김영택 화백은 펜화 한 장을 그릴 때마다 약 50만 번에서 70만 번의 선을 긋는데, 1mm 안에 5번의 선을 그을 만큼 아주 세밀한 그림이다. 우리 건축 천년의 아름다움이 마치 사진처럼 정교하게 되살아나 생명감을 느낄 수 있다.



## 쇼팽을 즐긴다

히라노 게이치로 지음, 조영일 옮김 / arte / 180p / 1만 3천원

피아노의 천재, 세기를 빛낸 위대한 작곡가, 19세기 유럽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 모두 쇼팽을 이르는 말이다. 쇼팽의 음악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최연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로 알려진 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이다. 그는 "쇼팽을 보다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그의 음악을 들으며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런 질문 자체에만 은밀한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바로 쇼팽의 음악"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쇼팽의 열렬한 팬이라 칭하는 작가는 쇼팽의 흔적을 직접 답사한 방대한 창작노트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쇼팽의 삶과 주변 인물들, 흥미로운 에피소드의 역기스를 담았으며, 쇼팽과 그의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안내서이자 입문서이다. 작가는 쇼팽과 관련해 남아있는 증언을 바탕으로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곳을 직접 따라가면서 한 인물을 되새겼다. 고향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파리, 런던까지 39년의 쇼팽의 생애를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작가는 쇼팽에게 더욱 더 매료되었다고 고백한다. 작가의 고백처럼 때로는 소설 같은, 때로는 음악 같은 쇼팽의 이야기를 통해 쇼팽의 세계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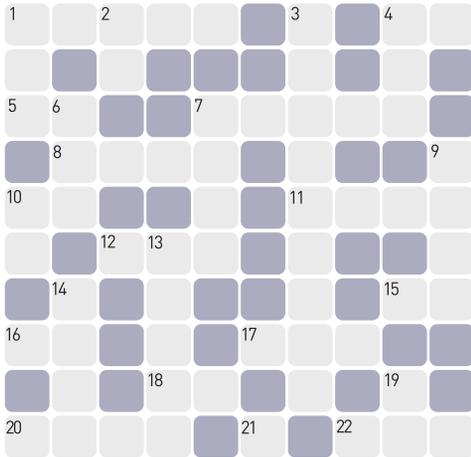


## 삼포시대(1~7권)

문성근 지음 / 호민다인피 / 323p / 1만 1천원

조선 역사 속 삼포 개항을 통해 새로운 삼포시대를 이야기하는 변호사 문성근의 역사소설.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가 넘쳐나며 '삼포시대(三拋時代)'란 말이 대한민국을 잠식한 지 오래, 삼포시대는 법과 제도의 후진성과 정치의 타락으로 탄생한 암울한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도 '삼포시대(三漕時代)'가 있었다. 지금의 부정적인 의미와 달리 부산, 울산, 진해의 항구를 열어 외국과의 왕성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소설 <삼포시대>는 '문명학'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조선의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한 권력층의 부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그 시대가 고스란히 이어져온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비판을 가한다. 글쓴이의 예리하고 통렬한 비판 속에는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문화적 선진성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쇼토쿠 태자의 출생의 비밀, 임진왜란 전후를 기점으로 한 역사에서 보이는 현대 정신대의 전신 등 현재의 역사적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동아시아사 속 숨은 비밀 또한 은밀히 엿볼 수 있다.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 가로열쇠

- ① 지난 200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태생의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인 가오싱젠의 동명의 희곡을 무대화한 부산시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
- ④ 기원전 약 6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름을 붙인 '오우화'가 유명하다.
- ⑤ 가상의 장소인 스킨 섬에서 온 거대한 고릴라에 대한 이야기로, 1933년 처음 영화로 개봉된 이래 두 차례 개작되었으며, 여러 속편과 패러디물이 있다.
- ⑦ 서양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인쇄술의 혁신자.
- ⑧ 덴마크의 수도.
- ⑩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주한미군이 올해 4월 26일 이것의 일부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포장에 전격 배치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 ⑪ 현재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함께 역대 인기게임 1, 2위에 오르내리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게임. 정해진 상자의 크기에 맞춰 여러 개의 조각들을 맞추는 간단한 놀이로, 한 판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친숙한 러시아 민요 테마송과 함께 러시아 병정의 춤이 시선을 끈다.
- ⑫ 경기민요 명창이자 '회심곡'으로 유명한 국악인.
- ⑬ 본래는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단어였지만, 현재는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 ⑭ 음식의 모양과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뿌리거나 얹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⑮ 노르웨이의 수도.
- ⑯ 내용은 민담과 비슷하며 둘 다 초자연적인 존재, 신화적인 요소, 자연현상의 설명 등을 그 내용으로 다루나, 오오는 특정한 장소나 인물에 관련되며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된다.
- ⑰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인 이이(李珣)의 어머니이자 시, 그림, 글씨에 능했던 여류 예술가.
- ⑱ 숫자 1(兆)의 1만배 크기로 10의 16승.
- ⑳ 남, 북위 25~35° 에 이르는 지역으로 온대와 열대 사이에 존재한다.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가 무려 70°C에 달하는 곳도 많다.

## 세로열쇠

- ① 공공장소에서 하는 모든 공연을 뜻하지만, 주로 음악가들의 거리 공연을 일컫는다. o o o 은 영어로 '공연하다'라는 뜻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했으며, 지난 18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다.
- ② 호는 견재. 중국풍의 관념적인 산수화를 답습하던 데서 탈피해 우리 고유의 화풍인 진경산수화를 개척하면서 우리나라 회화사상 중대한 획을 그었던 조선시대 화가. 대표작으로 국보 제217호 '금강전도', 제216호 '인왕제색도', '박연폭포' 등이 있다.
- ③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첫 소설로, 1774년 출간되자마자 젊은 세대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천재적 감성을 지닌 청년이 악혼자가 있는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과 의식의 상태를 서간체 형식의 산문으로 써 내리간 작품으로, 괴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아시아 서남부 아라비아 반도의 동북부에 있는 입헌공화국. 수도는 바그다드.
- ⑥ 일반 비행기보다 2배 빠른 속도로 2배 높이 날아올라 평균 8시간 넘게 걸리는 파리~뉴욕 구간을 3시간대에 주파했던 영국, 프랑스 합작의 초음속 여객기. 초음속 돌파 때의 소음 공해와 비싼 요금, 유지비로 1967년 비행 후 지난 2003년 역사의 자취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의 제안으로 '초화, 협력, 화합'이라는 의미를 지닌 'o o o'로 붙여졌다.
- ⑦ 미국 철강계의 거물이자 자선사업가인 솔로몬 o o o o 이 수집한 현대미술품들을 기반으로 설립된 미술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계단 없는 나선형 구조의 전시장은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으며, 특히 180점이나 되는 칸딘스키의 컬렉션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 ⑧ 올해 제70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스웨덴 출신의 영화감독 루벤 외스틀룬드의 영화.
- ⑩ 조선 20대 왕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게 한 임오화변을 다룬 이준의 감독, 송강호, 유아인 주연의 영화.
- ⑬ 지난 2011년 개관한 아시아의 대표적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한 전용관.
- ⑭ 임진왜란 당시 승려의 몸으로 큰 전공을 세우고 동시에 전후에도 포로 송환 등에 힘써 나라의 큰 공을 세운 승병장, 범영은 유정.
- ⑮ 고향 문경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도쿄에 건너가 반제국주의 단체인 흑도회를 결성했고,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불령서를 창립하여 항일활동에 매진했지만 간토 대지진 당시 일왕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해방될 때까지 22년간 복역했던 독립운동가. 최근 이준익 감독의 영화로 개봉됐다.

## 지난호 정답

1	노	자	와	2	베	토	벤	3	걸	프	4	전		
	벨				들				리			주		
	상		5	그	레	이	트	챔	버					
		6	옥		헬				7	여	우	비		
8	추	자	9	도			10	파	행					
	풍		핑		11	호	두	12	까	기	인	13	형	
14	낙	관		15	베	른		투					설	
	염		16	그	네			17	리	클			지	
		18	로		19	치	도	20	곤			21	준	공
22	맘	마	미	아		23	지	젤						담

## 6월호 퍼즐 당첨자

엘로인플라워	이종영(남구 수영로), 정민준(부산진구 가야대로)
큰집 식사권	김인숙(기장군 정관3로), 신상수(사상구 양지로), 양현명(사하구 승학로) 이현우(부산진구 동평로), 최성숙(금정구 부곡로)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초대권	고수진(동구 중앙대로), 손태민(사상구 백양대로), 윤미숙(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이호연(사하구 신선북로), 정연수(금정구 동부곡로)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지우(해운대구 대천로), 박현희(금정구 동천로), 서수현(부산진구 월드컵대로) 정용준(동래구 충렬대로), 최미경(남구 황령대로)



(재)부산문화회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하는

### 문화나눔복지사업 '그린어린이합창단' 창단

그동안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7월, (재)부산문화회관과 문화나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한다. 예술교육을 통해 부산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나누며 '문화소외 없는 부산'을 실현하고자 창단하는 '그린어린이합창단'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결성한 후 매주 1회 방과후 수업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

고를 배울 수 있는 예술감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예술교육을 위해 부산지역 예술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 멘토링을 통해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문화 나눔의 의미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린어린이합창단은 앞으로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올 연말, 직접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과 재능을 펼쳐보일 예정이다. 지도강사 모집요강 및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 bscc.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재)부산문화회관-브니엘예술고등학교 MOU 체결

(재)부산문화회관과 예술계 특성화 학교인 브니엘예술고등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14일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재)부산문화회관과 브니엘예술고등학교는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개발하고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관람

을 통한 문화예술관람 저변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힘써나가기로 했다.



### 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가 지난 6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학생과 시민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서포터즈 간 적극적인 정보 교환과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SNS 서포터즈 출범과 함께 홈페이지에 별도의 서포터즈 게시판을 운영하며 부산문화회관 SNS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발대식 후 당일 대극장에서 열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_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 2017년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7년도 3분기 강좌가 7월 3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지난 1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선보인 문화예술아카데미는 그동안 1, 2분기 강좌를 통해 여타 강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전문연주자들의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총 12개 강좌 20개반이 개설되는 이번 3분기 강좌에서는 바이올린, 가야금, 클라리넷, 해금, 사물놀이, 클래식기타, 요가와 한국춤 등 실기강좌와 지난 2분기 새로 개설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외에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소설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 '알면 더 재미있는 국악이야기' 등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고 수강생들의 요청을 받았던 인문학 강좌를 추가로 새롭게 개설, 강좌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우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입체적인 명강의 '유혁준의 음악이야기'는 과거 경인방송 클래식전문 PD로 활동했던 유혁준이 진행하는 강좌로, 클래식에서부터 발레, 뮤지컬,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최신 블루레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체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의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을 누비며 발로 뛰었던 그의 생생한 취재 경험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감동을 전해주는 한편 수강생들에게 '소리'가 아닌 진정한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강좌는 7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본격적인 강좌에 앞서 7월 4일 오후 2시 강좌를 소개하는 특강시간을 마련한다.

'소설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는 소설가 정영선이 진행하는 단기 강좌로, 수강생 각자의 경험과 사고를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이후 여행에세이, 수필, 소설 등 자신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준다. 강사인 정영선은 현재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외래교수로, 1997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한 후 그동안 장편소설 '실로 만든 달', '물의 시간', '부끄러움들' 등을 출간했으며 2001 부산소설문학상, 2007 부산작가상, 2016 봉생문화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7월 '감각을 여는 글쓰기 1'(7월 11일, 18일, 25일)을 시작으로 '감각을 여는 글쓰기 2'(8월 8일, 22일, 29일), '다르게 글쓰기'(9월 12일, 19일, 26일)라는 주제로 9월까지 한 달에 세 차례 진행된다.

지난 강좌에서 미술사의 폭과 깊이에 있어 차별화된 강좌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Artistic Fantastic 미술사'는 지난 2분기 '원시시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에 이어 어려운 현대미술을 주요 키워드로 수강생들과 만난다. 미술비평가이자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 장원은 홍익대학교 박사출신으로,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어 미술사와 음악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의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작가 출신인 뿌리야 김이 진행하는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또한 이론과 실전을 겸한 강좌로 수강생들의 인기가 많다.

새롭게 신설된 국악 감상 프로그램 '알면 더 재미있는 국악이야기'는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처럼 다양한 국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악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다. 2015년 제34회 대한민국작곡상을 수상하고 국악관현악 '환희', '왕의 귀환' 등 다수 창작곡을 작곡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백규진이 진행하는 강좌로, 7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펼쳐진다.

한편, 지난 2분기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신설되었던 '바이올린', '요가와 한국춤'은 시민들의 추가 개설 요청이 이어지면서 바이올린 1개 강좌, 요가와 한국춤 2개 강좌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요가와 한국춤'은 앞서 개설되었던 원형지무, 산조춤 외에 초보자를 위한 기초 입문반과 입춤반이 개설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선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6월 19일부터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607-6061~3, www.bscc.or.kr)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

## 부산시립예술단 7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7월,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꿈나무 소망 심기 공연, 내 사랑 부산 공연 등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 〈찾아가는 예술단 7월 일정〉

3일(월)	오전 9:00	사상구청 대강당_합창단
3일(월)	오전 9:30	수영구청 구민홀_교향악단
4일(화)	오전 10:00	부산시청 대강당_합창단
4일(화)	오전 10:00	부산시청 대강당_무용단
7일(금)	오후 2:00	부산대학교병원_극단
11일(화)	오후 1:30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 홀_청소년교향악단
12일(수)	오후 2:10	장안중학교_무용단
13일(목)	오후 3:30	덕문여자고등학교 강당_청소년교향악단
13일(목)	오후 6:30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_교향악단
14일(금)	오후 7:00	아르피나 유스호텔_국악관현악단
18일(화)	오후 4:00	부산건강보험관리공단 대강당_합창단
18일(화)	오후 9:00	부산파라다이스 호텔_무용단
19일(수)	오후 4:00	재송어린이도서관_극단
20일(목)	오후 7:30	KBS부산홀_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26일(수)	오후 12:20	기술보증기금 1층 로비_교향악단
26일(수)	오후 5:00	부산박물관 대강당_교향악단
28일(금)	오후 3:00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_교향악단

7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7월 3일 수영구청 구민홀에서 열리는 정례조례를 시작으로 13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 26일 기술보증기금 런치타임 콘서트(기술보증기금 1층 로비), 부산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부산박물관 대강당), 28일 부산교육연수원 등 5차례 찾아가는 공연을 갖는다.

부산시립합창단은 7월 3일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상구청 직원과 함께하는 정례조례를 시작으로, 4일 민선7기 출범기념 시청 정례조례(부산시청), 18일 부산건강보험관리공단 감정노동 순화 음악회(부산건강보험관리공단 대강당)를 가지며, 20일에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해군작전사령부 창군 60주년 기념음악회(KBS부산홀)에 선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7월 11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출정식 축하공연에 이어 13일 덕문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꿈나무 소망심기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에 선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7월 14일 아르피나 유스호텔에서 열리는 '2017한·러 청소년국제교류축하공연'에서 판소리, 대금·거문고중주, 사물놀이 등 신명넘치는 국악연주로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동안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으로 7월 한 달간 세 차례 공연을 갖는다.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은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무대로, 7월 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부산시청 정례조례에 이어 12일 장안중학교, 18일 세계천체입자물리학회(부산파라다이스 호텔) 무대에서 우리춤의 멋과 신명을 전한다.

부산시립극단은 지난달에 이어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 찾아가는 공연을 갖는다.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적'은 우리의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뒤죽박죽 이야기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과 환상을 심어주는 작품으로, 7월에는 7일 부산대학교병원, 19일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찾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3회 청소년 협연의 밤

# 협연자 모집

2017,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26일(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대상

전국 중·고·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중인 자로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모집부문

전파트(관악, 현악, 타악, 성악,  
특수악기 - 생황, 비파, 양금 등)

## 모집인원

6명 이내

## 응시곡목

협연곡(자유) 1곡



## 모집 계획

전형일자 : 2017년 8월 4일(금) 14:00 ※전형자는 오디션 당일 13:00까지 대기실에 입실 완료(순번추첨)

전형장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접수방법 : 2017년 7월 24일(월)-8월 1일(화) 18: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8월 1일(화) 17:00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전통예술·극단팀 국악담당(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우편접수는 겹봉투에 '국악관현악단 제43회 청소년 협연의 밤' 응시서류라고 기재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학교장(학과장) 추천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응시곡목 악보 7부

합격자 발표 : 2017년 8월 8일(화) 개별연락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전통예술·극단팀 국악담당(607-3124)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개관기념 기획전

어린이 예술교육체험 압도적 1위!!! 관객 만족도 9.7 ★★★★★

박진아의

# 모래랑 빛이랑

모래와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 어린이들의 두뇌발달에 최고!

- 일 시 : 2017. 07. 07(금)~08. 27(일) ※월요일 휴관
- 장 소 : (재)부산문화회관 전시실
- 체험회차 : 평 일 10:00/10:30/11:00/11:30/12:00 (평일오전은 단체예약에 한함)  
13:30/14:30/15:30/16:30  
주말 및 공휴일 10:30/11:10/11:50/13:30/14:30/15:30/16:30
- 입장료 : 평 일 11,000원 / 주 말 13,000원 / 단 체 10,000원(10명 이상)
- 입장연령 :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 예 매 : 인터파크 / 티몬 / 쿠팡
- 문 의 : 1899-8418
- 주 최 : (재)부산문화회관, 공감플러스퍼러덕션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 회원가입

**가입신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방문신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 관람권예매

**예매수령**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대표소 제시)

## 주의사항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입장권 예매 후 가상계좌입금(기간 내에 미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 VIP



연 회 비 10만 원

초 대 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최대 관람료의 다음 좌석부터 지정 예매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무료주차권 10매(유료 시행 시 제공)

# SPECIAL



연 회 비 5만 원

초 대 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6매(유료 시행 시 제공)

# MEMBER



연 회 비 3만 원

초 대 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4매(유료 시행 시 제공)
- 비가입 단체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 공통 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공연정보(SMS)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무료주차권(유료 시행 시 제공),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7년 예약 가능한 기획공연입니다.

※ 연주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대권 좌석은 S석 기준에 한함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5)



##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초청공연

🕒 5월 20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6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모차르트/아다지오와 푸가 다단조 KV546  
바흐/바이올린협주곡 마장조 BWV1042  
요한 슈트라우스 2세/페르페툼 모빌레 등

- 지휘/데안 다식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 연주/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 8월 8일(화) 오후 3:00, 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토슈즈 대신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서  
역동적이며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이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전혀 다른 정통 발레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



##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10월 14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힌데미트/폰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d 단조, Op.47  
슈트라우스/영웅의 생애, Op.40

- 지휘/요엘 레비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고도 미도리
- 연주/KBS교향악단



##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 '비엔나 챔버 플레이즈'

🕒 10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베버/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 Op. 34  
피아졸라/천사의 밀롱가, 천사의 죽음 외  
● 바이올린/베스나 스타코비치, 유희승

- 비올라/페터 사가이쎈
- 첼로/마이클 윌리엄스
- 클라리넷/헬무트 회들
- 바순/비앙카 슈스터



##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 11월 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TWV51:G9  
바흐/이탈리아 협주곡 BWV971

- 지휘/타케하루 노부히라
- 연주/텔레만 실내악단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을 위한

# 특별한 혜택!

DISCOUNT COUPON

BNK부산은행조은극장
공연관람료 <b>10~2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T. 1588-2757

공간소극장
공연관람료 <b>2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수영구 황령대로 497
T. 611-8518

필하모니
식사 <b>1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8-2592

모차르트
음료 <b>10%</b> 할인 ※ 식사 등 제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물회품은보쌈
식사 <b>1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남구 석포로 116
T. 612-5820

드레스ARIA
대여 및 판매 <b>3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29
T. 515-5796

안경나라(동래점)
전 상품 <b>20%</b> 할인 ※ 일부품목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동래구 총렬대로 110
T. 505-8987

노벨안경콘택트
전 상품 <b>2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T. 626-8263

여우 헤어스토리
현금 20%, 카드 <b>10%</b> 할인 ※ 커트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중구 흑교로 16-1
T. 243-0609

대보당한의원
진료비 <b>15%</b> 할인 ※ 비보험진료(탕약 봉침 등) 진료비, 청정한약 다이어트(홍보단 제외), 공진탕, 경옥고 등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골든테마길 14
T. 412-7513

희망클리닉
진료비 <b>1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 누리빌딩 9층
T. 804-0999

알파신경외과
진료비 <b>1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T. 807-0114

# 한반도 아리랑 환타지아

2017. 7. 19(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국악관현악과 양악기를 위한 아리랑 환타지아  
편곡 김대성
- 훈의소리 아리랑  
편곡 이준호 | 합창 한울림 합창단  
민요 박성희, 정선희, 이소정, 최윤영
- 북한성악가 김훈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압록강 2천리, 박연폭포 편곡 박위철 | 테너 김훈
- 신아리랑 작곡 김동진 | 편곡 지원석 | 소프라노 남순천
- 우리아리랑 작곡 강상구 | 테너 최원갑 | 소프라노 남순천
- 북한개량 단소협주곡 [서도아리랑]  
편곡 김대성 | 리코더 권호진
- 위촉 초연곡 [하나되는 아리랑]  
작곡 박위철

주 최 |  부산문화회관

주 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 장 료 | 균일 10,000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1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1회 정기연주회

# 미완성 Unvollendete

2017. 7. 7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 **초이 호만**  
*Choi Ho-man*

## Program

스메타나 | 「나의 조국」 中 "몰다우"  
B. Smetana | 'Vltava' from "Má vlast"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슈베르트 | 교향곡 제8번 「미완성」  
F. Schubert | Symphony No.8 "Unfinished"

림스키-코르사코프 | 스페인 기상곡  
N. Rimsky-Korsakov | Capriccio Espagnol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5(정기회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공연 1시간전 / 30분전(2회 운행)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예체능동호회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피아노 | **김진호**

THREE  
PORTS  
TIME

삼포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전쟁대하소설,

# 삼포시대

일본의 국가체제를 정립한 쇼토쿠 태자는  
백제 무령왕이 일본에서 씨 뿌린 사생아,  
일찍이 한국의 우수한 문명은  
포구를 통해 일본에 문화의 꽃을 피웠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한일관계의 비밀을  
역사의 문풍지 틈새로 살짝 엿본다



총 7권 · 지은이 문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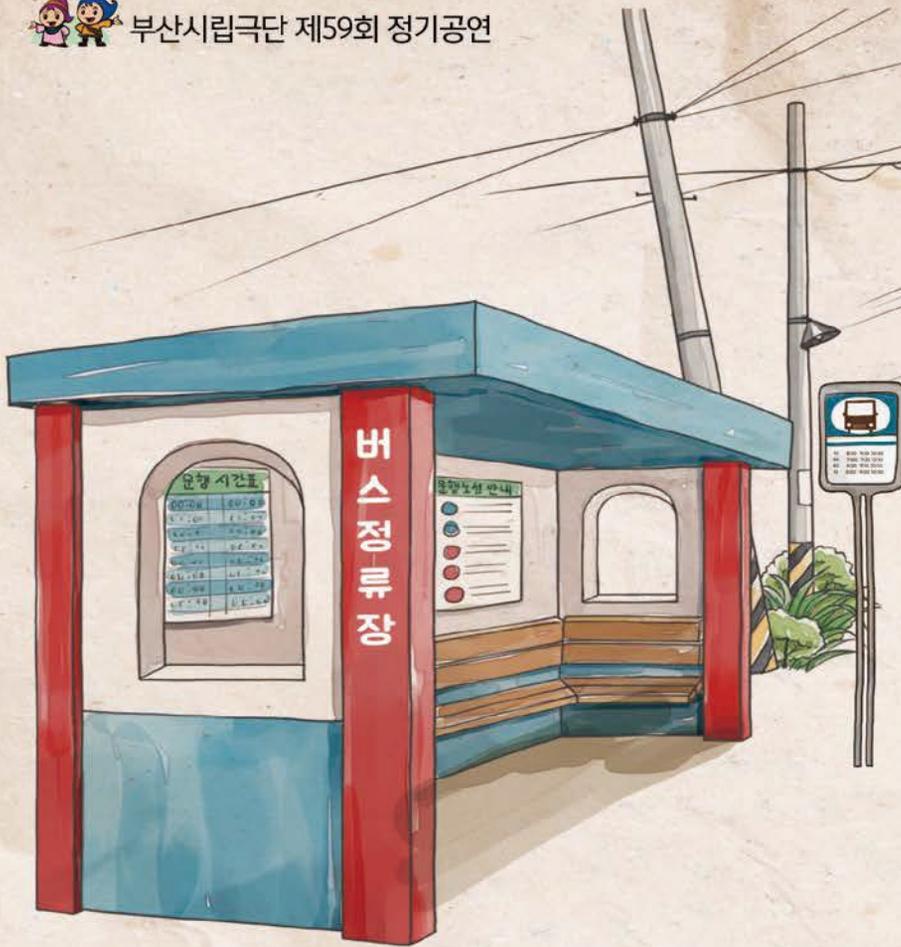
현재 1~3권 발행  
4, 5권 - 7월 초 발행 예정 / 6, 7권 - 9월 말 발행 예정  
구입문의 | 효민디앤피(051-807-5100) · 전국유명서점



# TRISHA

WEDDING JEWELRY





# 연극 버스정류장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2017년 7월 11일(화)-15일(토)  
평일 7시 30분 주말 5시  
해운대문화회관 고문홀

예술감독 곽종필  
작가 가오상젠  
객원연출 오정국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Sun&Fun Haeundae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입장권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시립극단 607-3125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bsc.or.kr 인터파크 1544-1555

출연 황창기 정마린 이현주 김은희 이혁우 염지선 김은옥 서보기  
스텝 조연출 오희경 번안작가 오수경 무대감독 정순지 무대조감독 배기철 안무 강희정  
음악 진현미 무대 황지선(디자인) 김재한(제작) 분장 박은주 조명 조성오 의상 안정숙  
기획 조승환 홍보 박지현



알티렌즈 아시아태평양 레퍼런스 닥터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Surgeon

**스마일라식**

**누네빛안과**의원

#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2017년 8월 8일 (화) 15:00 & 8월 9일 (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주최 | 부산문화회관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www.bscc.or.kr | 5세 이상 입장가능